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석사학위논문

예술고등학교 미술과(科)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2018 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은 솔

예술고등학교 미술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형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협동과정 미술교육전공
은 솔

은솔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8 년 2 월

위 원 장	차 동 하 (인)
부 위 원 장	고 은 실 (인)
위 원	김 형 숙 (인)

국 문 초 록

본 논문은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예술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고찰한 연구이다.

최근 나날이 진로교육이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예술고등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진로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효과적인 진로지원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4년제 미술대학의 예술고등학교 출신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 ‘학업 적응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학업 적응성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으며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한 예술고등학교 재학 시기에 받은 진로교육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이 시기의 교육적 경험이 학업적응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전공선택동기의 하위 요인들 중에서 학업적응도와 상관이 가장 높은 요인은 적성·흥미로 나타났으며 입시 유용성이나 타인의 영향 및 평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전공을 선택할 때에는 대학입시에 유리한 정도나 주변인의 권유를 고려하는 것 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 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보다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적성과 흥미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효능감은 학업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자신

의 성격이나 전공에 대한 호감보다 해당 전공의 표현활동에 대한 자신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공 선택의 중요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둘째, 회귀분석을 통해 적성·흥미,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학업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순으로 높았다. 이는 학업적응에 학생 개인의 적응력인 자아탄력성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학업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했다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학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공선택동기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회귀분석을 통해 예고에서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돕고 타인의 평가나 의견 보다는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예술고등학교 학생들만의 특수한 진로지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아낸 것으로서, 미술관련 진로교육의 기초적인 연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진로교육, 전공선택동기,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
미술대학, 예술고등학교

학 번 : 2015- 21684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내용	2
3. 연구의 중요성	4
II. 이론적 배경	9
1. 전공선택동기	9
2. 학업적응성	23
3. 자아탄력성	28
III. 연구 방법	32
1. 연구 방법	32
2. 연구 도구	34
3. 자료 분석 방법	45
IV. 연구 결과	46
1. 전공선택동기	46
2.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	52
3. 전공선택동기, 학업적응성,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54
4. 학업적응에 적성·흥미, 자아탄력성, 진로교육경험이 미치는 영향	58
5. 종합 분석 및 논의	60
V. 결론	68
참고문헌	72

부 록 (설문지)	76
Abstract	81

표 목 차

<표 1>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6
<표 2> 진로선택 관련 요인	17
<표 3> 선행연구의 전공선택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	20
<표 4>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22
<표 5> 대학생활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25
<표 6> 연구대상 참여현황	34
<표 7>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35
<표 8> 문헌 분석,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한 전공선택동기 요인추출...	36
<표 9> 문헌분석, 심층면접을 통해 구안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체계...	38
<표 10> 정은희의 연구에서 학업적응 신뢰도 계수.....	43
<표 11> 학업적응 척도 문항 변경	44
<표 12> 요인구조행렬	47
<표 13> 전공선택동기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사결과	48
<표 14> 요인분석을 통해 변경된 요인 체계	50
<표 15> 예고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51
<표 16> 자아탄력성 신뢰도 검증	52
<표 17> 예고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52
<표 18> 학업적응성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사결과	53
<표 19> 예고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학업적응성	53
<표 20>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상관정도 판단 기준	54
<표 21> 적성흥미, 입시유용성, 타인의 영향과 학업적응 상관분석 ..	55
<표 22> 적성흥미 하위요인과 학업적응 상관분석	55
<표 23> 학업적응 하위요인과 적성흥미 상관분석	56
<표 24> 적성흥미, 자아탄력성과 학업적응 상관분석	57
<표 25> 학업적응,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진로교육경험 상관분석 ...	58
<표 26> 학업적응에 적성·흥미, 자아탄력성, 진로교육경험이 미치는 영 향에 대한 회귀분석	59
<표 27> 예술고등학교 미술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요인 구조 ..	62

그림 목 차

<그림 1> Holland의 육각형 모형	12
------------------------------	----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학업적응성의 정도를 확인하고, 두 수준 간의 영향 관계를 밝히는데 있다. 이를 위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지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그 하위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 후 이를 체계화하기 위해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 학생 300명을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요인들을 유목화하였다. 또한 이들의 전공 학업 적응도를 기존의 검사도구를 사용해 함께 측정함으로써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적응성의 두 수준의 영향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업적응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아탄력성을 조사하였다. 자아탄력성은 극심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도 이에 적응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Block, 1996). 따라서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대학 진학 후의 전공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스트레스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의 두 변인 중 어떤 변인이 학생들의 학업적응에 더 큰 영향력을 갖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선정되었다. 즉, 전공을 선택하고 이에 적응하는 수준이 선택 동기 측면에서의 영향이 크지 아니면 적응을 잘하는 개인적 능력의 영향이 큰지를 검증하고자 한 것으로 학업적응과 전공선택동기의 관련 정도를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학업적응에 대한 전공선택동기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진학 후 전공 학업적응을 잘 하도록 돕

기 위한 고등학교 시기의 진로교육 내용과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요컨대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진로교육에서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진로교육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술고등학교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에 따라 질적인 접근과 양적인 접근을 병행 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 학생들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전공을 선택하는가?

둘째,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 학생들의 학업적응성은 어떠한가?

셋째, 전공선택동기의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이 학업적응성과 더 큰 상관이 있는가?

넷째,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은 학업적응성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나 상관이 있는가?

다섯째,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 중 학업적응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인가?

여섯째, 진로교육 경험이 학업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I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먼저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학습동기이론과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보았다. 예술고등학교 학생이 전공을 결정하는 과정은 전공의 교육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동기와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해 고려하는 진로결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학습 동기이론과 진로 발달이론의 검토를 통해 예고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의 개념과 요소를 구성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선택되었다. 자아탄력성은 삶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서도 다시 회복하거나 내적으로 더욱 풍부해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대학 진학 후의 전공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학업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의 이론적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학업적응성의 개념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학업적응은 예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종속변인으로서 의미가 있다.

Ⅲ장에서는 예고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 방법을 실시하였다. 자아탄력성의 경우 기존에 이미 널리 쓰이는 검사도구가 있어 그 중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R(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2002)이 번안하여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업적응도의 경우 Baker와 Siryk(1989)이 개발, 제작한 것을 정은희(1993)가 우리나라 대학 실정에 맞게 번안한 도구가 있으나 검사 문항이 미대생에게 부적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은희(1993)의 검사도구를 사용하되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검사 문항에서 일부 문항의 세부 용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전공선택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었으나 미술전공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기에 예술고등학교 재학생, 예고

출신 대학생, 예고 교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여 전공선택동기 요인을 추출하고 이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예술고등학교에 특수화된 문항을 구안하였다.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분석에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IV장에서는 예고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 학업적응도 간의 영향관계를 밝히기 위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예술고등학교에 맞게 구안한 전공선택동기 척도의 각 문항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서로 관련도가 높은 문항끼리 묶어 세 개의 하위 요인인 흥미·적성, 타인의 평가·영향, 입시 수월성으로 유목화 하였다. 또한 이 세 가지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문항이 대상을 잘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얼마나 신뢰로운지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나머지 두 변인인 자아탄력성과 학업적응도 역시 내적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전공선택동기의 세 가지 하위 요인 학업적응도와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으며 조사 대상이었던 예고 출신 미술대학생의 학업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공선택동기의 세 가지 요인 중 학업적응과 상관이 있는 ‘적성·흥미’요인과 자아탄력성, 진로교육경험을 비교하여 서로 상관이 있는 변수들을 확인하였으며 이들 변인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론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바탕으로 예술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3. 연구의 중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모든 중·고교에서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에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

써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진로교육법을 제정, 공포했다(교육부, 2015). 이에 따라 모든 중,고교는 진로전담 교사를 배치하고 진로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정부의 교육개혁 5대 과제로 일부 시행되어 오던 자유학기제를 2016년부터 전면 시행했다. 현대사회의 직업세계가 점점 다양화, 세분화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능동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진로교육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고등학교 2학년에 이수해야 하는 교과를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누어 '진로선택과목'에 할당된 단위 안에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 교육과정을 재구성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교육부, 2016). 그러나 치열한 미술대학 입시 경쟁 속에서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입시 위주의 실기 교육에 치중될 수밖에 없다. 교육부에서 지정한 선택과목은 미술 창작, 미술과 비평으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전공이나 직업 탐색과는 관련이 없으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에서 지정할 수 있게 한 전문교과 역시 미술 이론, 미술 미술사, 전공실기, 드로잉 등 일반적인 미술 이론과 실기 과목 위주이다. 학생들이 실제로 자신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에서의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체험 활동이 전부이다. 따라서 진로교육을 강조한 2015년 교육과정은 예술고등학교에서는 그 실질적인 효력을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때문에 예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효과적인 진로교육과정의 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예고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진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1> 서울예술고등학교 미술과 교육과정

교과영역 교과목	기 준 단 위	운영 단위	1학년		2학년		3학년		이수단 위	필수단 위	
			1학 기	2학 기	1학 기	2학 기	1학 기	2학 기			
일반교과 소계		100	19	19	19	19	12	12	100	77	
심 화 교 과	드로잉	28	28	4	4	4	4	6	6	80	80
	구상과표현	16	16	4	4	4	4				
	미술이론	5	6	5	6		1	2	2		
	전공실기	30	30	4	4	5	5	6	6		
심화교과소계		80	12	12	14	14	14	14	80	80	
창의적 체험활동	24	24	6	6	4	4	4	0	24		
학기별 총 이수 단위			37	37	37	37	30	26	204		
학기당 과목 수			8	8	10	10	8	8			
학년별 총 이수단위			74		74		56		204		

※미술과의 23학년 전공 실기 교과는 다음 중 택 1함: 한국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표 1>의 서울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예고 학생들은 1학년 때 세부 전공을 선택하고 2학년 때 부터 본격적인 전공 교육을 받게 되며 이는 3학년의 대학입시 준비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세부 전공은 일반적으로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으로 나뉜다.) 일반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가 주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이후인데 비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선택은 1학년이 채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 시기에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의 부담감은 막중하다. Super(1963)에 의하면 만 15~17세 청소년은 진로발달 단계의 ‘잠정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 탐색 경험을 통해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고자 시도한다. 만 18세가 되면서 ‘전환기’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에서 청소년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적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현실적인 외부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잠정기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현실적인 외부요인을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우며 직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진로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미성숙한 발달단계에 위치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미술이라는 영역 특수성과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특수성을 반영한 진로 연구가 필요하다.

김세훈(2015)은 근래 들어 문화예술을 경제적 차원에서 바라보려는 경향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하면서 이는 문화예술이 단순히 소비영역이 아니라 생산영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았다. 문화예술분야의 기능적, 생산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증가는 문화예술 인재 양성이 중요한 시대적 요구임을 말해준다. 따라서 창조적, 예술적 기량을 가진 청소년들을 조기에 선발해 미술 분야의 인재로 육성하는 예고의 사회적 기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전국의 예고 미술과 학생들은 장차 예술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영역 전반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사회·경제 전반의 가치에 기여할 중요한 인적 자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장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미술 관련 진로 결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진로를 선택한 이후에도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전공 학습 과정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등 진로성숙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는 진로지도의 기초자료가 되는 예술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한 진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예고에서 학생들의 진로개발과 전공 선택을 위해 효과적인 진로지원이 어떠한 것인 가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자는 예고 미술과 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학업 적응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먼저 진로결정요인 중 하나인 동기요인을 탐구함으로써 학업 적응성이 높은 학생들과 낮은 학생들의 동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다. 다음으로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이라는 변인을 설정하고 자아탄력성이 동기요인과 함께 학업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전공 선택 후의 학습활동과 학과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하는 일은 미술을 전공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

는 미술진로교육의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전공선택동기

1) 학습동기이론, 진로발달이론

예술고등학교, 이하 예고의 학생들이 전공을 결정하는 과정은 특정 전공의 교육내용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동기와 전공 관련 직업에 대해 고려하는 진로결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요인을 밝혀내기 위해 학습동기이론과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학습동기이론

동기이론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동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동기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계기’를 말한다. 동기는 라틴어로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지닌 ‘mov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인간이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움직이게 하는 근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동기의 사전적 정의와 어원적 의미를 포함한 ‘전공선택동기’는 전공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행위를 유발한 계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Maslow(1968, 1970)는 인간의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에 위계가 있다고 보았다. 그는 아래에서부터 생존의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인정의 욕구, 자기실현의 욕구, 심미적 욕구로 나뉜 상하의 위계구조로 인간의 욕구를 구분하였다. 여기서 하위 욕구인 생존, 안전, 소속,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자아실현 욕구와 예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심미적 욕구를 가지게 된다(신종호 외 역, 2012). 예고라는 학교 상황에 이를 적용하면 학습동기를 높이고 올바른 전공 선택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하위욕구들이 채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예고는 Maslow의 위계 중 가장 상위에 있는 심미적 욕구를 추구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개인적인 내적 동기와 욕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전공을 선택하는 동기는 전공의 교육과정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동기를 포함한다. Schunk 외 2명(2008)에 따르면 학습 동기는 외재 동기와 내재 동기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외재 동기는 최종 목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인 반면, 내재 동기는 활동 그 자체를 위해 참여하는 동기와 관련된다. 내재 동기는 학습과 이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동기라고 할 수 있지만 내재 동기와 외재 동기가 서로 연속선상의 양극단(즉, 외재 동기가 높으면 내재 동기가 낮고, 내재 동기가 높으면 외재 동기가 낮음)에 있는 개념은 아니다 (신종호 외, 2012). Schunk 외 2명(2008)의 학습동기이론을 살펴보면 전공선택동기를 이루는 구성요인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예고에서의 전공학습에 대한 동기를 내재요인과 외재 요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전공 학습 활동 그 자체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내재요인으로, 대학 합격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동기는 외재요인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예고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이론적 틀로서 Schunk 외 2명의 관점을 참고하였으며 학생들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거쳐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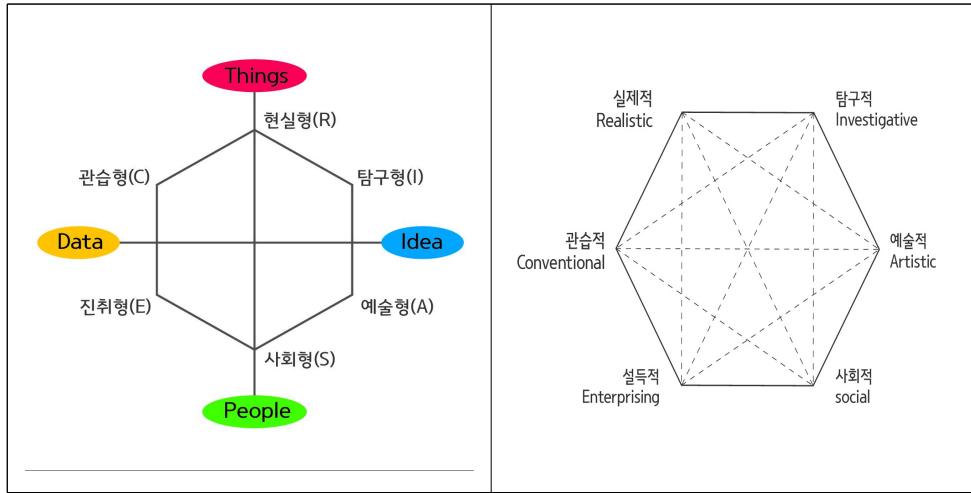
나. 진로발달이론

예고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행위는 전공을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동기 뿐만 아니라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진로를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 의사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진로 결정 과정을 탐구한 진로발달이론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진로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은 다양하다. 대부분의 진로발달 이론들은 ‘왜 사람들이 특정 직업

을 선택하게 되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로발달 이론들은 크게 개인의 성격 구조의 특징에 초점을 둔 구조론적인 관점과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진로에 대한 태도나 능력이 발달한다고 보는 발달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특성-요인 이론’, ‘성격 이론’, ‘사회학습 이론’, ‘발달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성-요인 이론은 개인의 특성과 직업 또는 직무를 구성하는요인에 관심을 두고 개인의 특성이 직업적 요구사항과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맺을수록 직업적 성공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특성-요인 이론은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전공선택동기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개인의 특성, 즉 적성, 지능, 사회·경제적 지위, 흥미, 가치관, 성격 등이 중요한 구성 요인임을 시사한다. 즉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할 때 관련된 진로가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맞는지 고려하는 것이 성공적인 진로결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격 이론은 Holland(1997)의 성격이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발휘하고 태도와 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찾는 과정을 직업선택의 과정으로 보았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나 성격 유형을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각 성격의 패턴에 가장 적합한 직업 환경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았다. Holland의 이론에서 성격의 개념은 직업 선택의 경향성으로 ‘직업 흥미(occupational interest)’ 또는 ‘직업 성격(occupation personality)’을 의미한다. 직업 흥미의 유형은 실재적(Realistic), 탐구적(Investigative), 예술적(Artistic), 사회적(Social), 설득적(Enterprising), 관습적(Conventional)의 6가지로 분류하였다. 다음 <그림 1>은 Holland의 육각형 모형을 나타낸다.



<그림 1> Holland의 육각형 모형

Holland의 성격유형에서 예술형은 5개의 나머지 하위 유형과 결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술형이면서도 설득형이거나(AE) 예술형이면서 사회적이고 설득적인 유형(ASE)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성격이론에서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해 주목할 점은 개인의 특정 성격에 적합한 예술적 진로 환경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진로 선택에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자신이 선택한 진로환경에 보다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학습 이론은 Krumboltz, Mitchell(1990, 1996)의 이론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진로 의사 결정이 개인의 학습경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진로결정을 개인의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한 특성-요인이론이나 성격이론과는 차이가 있다. Krumboltz, Mitchell(1990, 1996)은 개인의 교육적·직업적 선호 및 기술이 어떻게 획득되며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업이 어떻게 선택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진로 의사 결정은 개인의 학습경험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진로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 째는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genetic endowments and Special ability)으로 개인의 진로 선택의 기회

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을 말한다. 인종이나 성별, 신체적 특징과 예술적 재능이 포함된다. 둘째는 환경적 조작과 사건(environmental conditions and events)이다. 이는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의 특정한 사건이 진로 선호나 진로개발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기술의 발달, 사회조직의 변화, 가정의 영향, 교육 제도 그리고 지역사회의 영향이 포함된다. 셋째는 학습경험(learning experience)으로 개인이 과거에 학습한 경험이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미래의 행동은 과거에 받은 부정·정적 강화, 즉 학습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넷째는 과제접근 기술(task approach skills)로 개인이 환경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하며 미래를 예견하는 능력이나 경향으로 위의 세 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난다. 문제해결기술, 정보수집능력, 인지적 과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Krumboltz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조작과 사건’을 환경적 요인으로,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을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했다. 환경적 요인은 개인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이를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 하지만 심리적 요인은 외부의 도움으로 변화가 가능한 요인이다. 이 네 가지 요인의 결과는 행위의 산출(action outcomes)로 어떤 직업, 교육·훈련에 지원하거나 대학에서 전공을 바꾸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강혜영, 2008). Krumboltz의 사회학습이론은 개인의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과정을 체계화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진로결정요인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전공선택동기라는 개념은 보다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학습이론은 예고 미술과 학생들의 전공선택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의 진로결정요인을 탐구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예를 들어 전공선택에 영향을 준 요인을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의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서 ‘유전적 요인’은 특정 전공에 대한 미술적 재능이나 신체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으며 ‘환경적 조작과 사건’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의 전공에 대한 관심 등이 될 수 있다. 심리적 요인에서 학습경험은 예고에서의 전공 실기 수업이나 진로

교육 경험을 들 수 있다.

진로결정요인에 대한 이론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다. 예술고등학교에서의 전공선택동기는 진로결정요인과 유사하지만 더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진학이라는 범위에 한정된 진로결정이며 이미 미술을 진로로 결정한 학생들 중 세부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한 요인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진로결정요인이 개인이 진로결정에 미친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향(예를 들어 사회 계층이나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인 것과 달리 전공선택동기는 전공을 결정한 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달 이론은 진로이론 중 가장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이론으로 진로 발달을 인간의 발달 과정의 한 측면으로 바라보는 관점이다. 즉 개인의 진로선택 및 진로 의사결정 과정은 생애 발달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발달 이론은 성장의 각 단계에서 개인이 고려하는 진로의사결정 행동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한지를 발달적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Ginzberg(1952)는 직업선택과정을 하나의 발달단계로 보았다. 그는 직업을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그 전 단계와 이후 단계의 결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이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비가역적이고 연속적인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았다. 그는 직업 선택의 과정을 바람(Wishes)과 가능성(possibility)간의 타협(Compromise)으로 보았는데 타협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진로의사결정이 비가역적인 특성을 띄게 된다. Ginzberg가 제시하는 진로발달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단계는 ‘잠정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아동기의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을 떠올리는 환상 속의 비현실적 세계가 아닌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이해하고 이를 고려하여 진로를 탐색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시기이다. 잠정기는 다시 흥미 단계

(11~12세), 능력단계(13~14세), 가치단계(15~16세), 전환단계(17세)로 세분화될 수 있다. 흥미단계에서는 자신의 취미나 흥미가 직업 선택의 기초가 되며 능력단계에서는 자신의 직업적 열망과 관련하여 자신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 가치단계는 자신의 가치나 생애 목표가 직업 선택에 적용되며 전환단계에서는 현실적인 외부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고려하게 된다.(유현실, 2007) 예고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시기인 고등학교 1학년(만 16세) 시기는 잠정기 중에서도 가치 단계에 해당하므로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흥미와 능력, 삶의 가치를 고려하면서도 현실적인 외부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학생들이 직업과 관련이 있는 세부 전공을 결정하는 과정은 발달 단계 상 쉽지 않은 과정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이론의 현장 적용이 타당함을 의미한다. 직업선택을 타협의 과정으로 본 Ginzberg와 달리 Super(1963)는 타협과 선택이 상호작용하는 일련의 적응과정으로 보았다. Ginzberg나 이전의 연구자들이 진로(career)를 직업(vocation)선택의 시기에 국한시켜 설명한 반면 그는 진로를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는 발달 과정으로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생을 마감하기 까지 겪게 되는 진로발달과정을 ‘성장기(0~14세) - 탐색기(15~24세) - 확립기(25~44세) - 유지기(45~65세) - 쇠퇴기(65세 이후)’로 구분했다. 탐색기의 개인은 학교생활, 여가활동, 일 등을 통해서 자아검증, 역할 시행, 직업적 탐색을 행하게 되며 이 시기는 다시 ‘잠정기(15~17세) - 전환기(18~21세) - 시행기(22~24세)’로 세분화 된다(김계현 외, 2013) 본 연구의 대상인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Super의 진로발달단계 중 탐색기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잠정기에 해당한다. 이 시기는 Ginzberg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더불어 다양한 직업 탐색 경험을 통해 진로를 잠정적으로 선택하고자 한다, 나아가 외부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장래의 직업 세계에 대비한 교육이나 훈련에 관심을 갖는다. Ginzberg와 Super의 발달이론을 통해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진로 행동과 발달 과업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시기는 자신의 흥미와 적성 능력 등 개인 내적인 요인에 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바탕으로 진로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본 학습동기이론과 진로발달이론을 통해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에 대해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의 사전적, 어원적 의미에 대한 탐색과 다양한 ‘진로결정요인’을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을 보다 명료화할 수 있다. 예술고등학교에서의 전공선택동기는 진로결정요인과 유사하지만 보다 특정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여러 가지 진로 중에서도 진학이라는 범위에 한정되어 있으며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등과 같은 미술과 관련된 세부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한 요인에 한정된 개념이다. 또한 진로결정요인이 개인의 진로결정에 미친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향(예를 들어 사회 계층이나 교육 정책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인 것과 달리 전공선택동기는 전공을 결정한 행동을 유발한 직접적인 요인, 즉 동기가 되는 요인을 고려하는 것이다. 요컨대 본 연구에서의 전공선택동기의 조작적 정의는 ‘예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행동을 일으킨 계기’로 규정 지을 수 있다.

둘째, 진로발달과 관련한 주요 이론은 ‘개인이 특정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살펴 볼 수 있다. 앞서 살펴 본 학습동기 이론, 특성-요인 이론, 성격 이론, 사회학습 이론, 발달 이론을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구성요인은 아래의 <표 2>와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표 2> 진로선택 관련 요인

이론	연구자	관련 요인	분류
학습동기 이론	Schunk 외 2명	내재동기, 외재동기	내재동기 외재 동기
특성-요인 이론	T. parsons	적성, 능력, 흥미, 포부, 환경 직업에 대한 지식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지식
성격 이론	Holland	직업 흥미	실재적, 탐구적, 예술적, 사회적, 설득적, 관습적 흥미
사회학습 이론	Krumboltz, Mitchell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작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기술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발달 이론	Ginzberg, Super	개인의 취향, 직업 요구 조건, 욕구, 흥미, 능력, 가치, 직업가치, 현실적 요인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발달적 구분)

셋째, 발달 이론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예술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 과정이 어떠한지를 발달적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Ginzberg(1952), Super(1963)가 제시한 진로발달 단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1학년인 만 16세는 장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자신의 흥미와 능력, 삶의 가치를 고려 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실적인 외부 요인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선

택을 돕기 위해서는 흥미와 적성 등 자신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현실적인 외부 요인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2) 전공선택동기의 선행연구

가.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에 대한 선행연구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적 정의는 하나의 이론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전공선택동기는 학과 별, 연구 주제와 대상 별로 다양한 조작적 정의가 사용되고 있으며 ‘진로결정요인’, ‘직업선택요인’ 등의 유사한 개념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 또는 그와 유사한 개념에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임언(2006)은 “전공선택 과정에 있어서 그 전공의 전망에 대한 인식, 특정한 학교의 특정학과가 갖는 사회적 위상 또는 학교 내에서의 인지도 등과 함께 재학 중의 교육과정과 졸업 후 진출 분야가 개인의 특성과 잘 부합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견남(2008)은 합리적인 대학 전공선택은 자신이 원하는 진로목표, 자기이해(흥미, 가치관, 성격, 능력 및 기술), 환경(가정적 환경, 사회적 환경),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 대학 전공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선택 가능한 전공을 고르는 지속적인 행위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예정(2014)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을 “전공선택에 있어 자신이 특정 전공을 선택하게 된 원인이나 계기”로 정의하였다. 오지혜(2016)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를 전공선택 시 자신이 해당 전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일차적 원인이나 계기”로 정의하고 있다.

나. 전공선택동기의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

전공선택동기의 요인,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을 고찰한 연구는 아래와 같다.

Krumboltz, Mitchell(1990, 1996)는 진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으로 분류했다. 환경적 요인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조작과 사건’이라는 두 가지 하위 요인을 포함하고 심리적 요인은 ‘학습경험’과 ‘과제접근기술’ 요인을 포함한다. 네 가지 하위 요인이 상호 작용해 특정 행위로 산출되는 것으로 이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전공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강혜영, 2008).

한국교육개발원(1989)에서는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직업적 요인의 세 가지로 구분해 설명하였다. 개인적 요인에는 지능,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신체적 요인이 있으며, 환경적 요인은 가정의 배경, 동료집단과 학교의 영향, 성역할 사회화 요인을 포함한다. 직업적 요인은 직업 및 업무의 특성, 직업의 안정성, 임금 및 수입, 근무환경과 조건, 미래의 전망, 직업을 통한 적성과 능력발휘 등을 포함한다.

임용수(1993)는 진로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요인, 개인 배경 요인, 사회심리적 요인, 사회구조·제도적 요인의 네 가지로 분류했다. 개인요인에는 성별, 지능, 학업성적, 적성, 재능, 초기 경험 등이 포함되며 개인 배경 요인에는 사회경제적 계층배경, 거주 지역, 전공계열 등이 포함된다. 사회심리적 요인은 부모, 교사와 같이 의미 있는 타자로부터 받은 영향과 가정의 문화 심리적 환경, 학교 문화나 풍토의 영향을 의미한다. 사회구조·제도적 요인은 교육제도, 입시제도, 학력중시와 같은 사회적 풍토, 산업·직업구조, 성역할분화, 인력충원제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전공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고 영향을 받은 요인별로 전공만족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른 선택의 경우가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가정환경에 맞추어 선택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학업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결정한 경우가 가장 낮았다.

이명애(2007)는 대학생의 전공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학생의 흥미와 적성, 전공을 통한 자기개발 가능성, 전공 인기도, 전공 공부의 어

려운 정도, 성적 및 전공승인 가능성, 선배나 친구의 권유를 선정했다. 졸업 후와 관련해 고려하는 요인으로 취업의 용이성, 높은 수입과 사회적 지위 보장, 학문분야의 발전 전망을 포함하여 이를 개인적 특성변인 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대학생들의 대학 입학 시에 자신의 흥미와 적성 보다는 수능성적과 합격 가능성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보연(2010)은 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선택요인에 대한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를 개인적동기와 사회적동기로 구분하고 개인적 동기에는 적성, 흥미, 장래희망을 포함하였으며 사회적 동기에는 전공 인기, 취업 전망, 전공 공부의 수월성, 주변인의 권유를 하위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전공선택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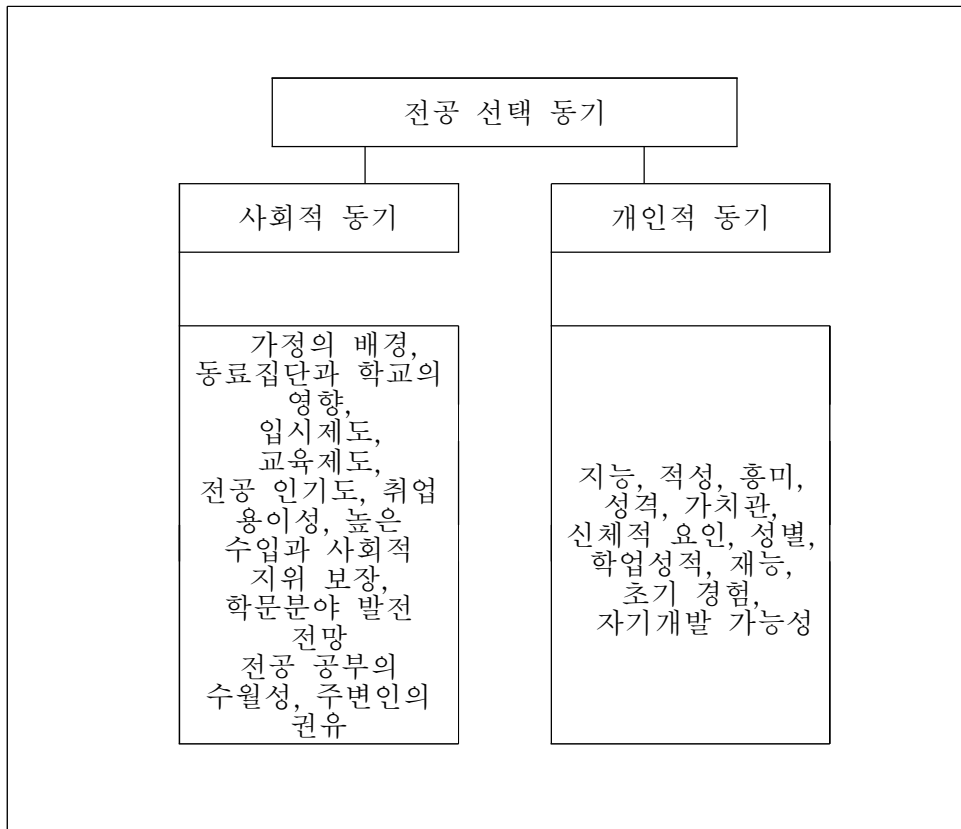
<표 3> 선행연구의 전공선택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

연구자	전공선택동기 하위 요인	분류
Krumboltz, Mitchell(1990, 1996)	유전적 요인, 환경적 조작과 사건, 학습경험, 과제접근기술	환경적 요인, 심리적 요인
한국교육개발원(1989)	지능, 적성, 흥미, 성격, 가치관, 신체적 요인, 가정의 배경, 동료집단과 학교의 영향, 성역할 사회화 요인, 직업 및 업무의 특성, 직업의 안정성, 임금 및 수입, 근무환경과 조건, 미래의 전망, 직업을 통한 적성과 능력 발휘 등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 직업적 요인
임용수(1993)	성별, 지능, 학업성적, 적성, 재능, 초기 경험, 사회경제적	개인 요인, 개인 배경 요인, 사회심

	계층배경, 거주 지역, 전공 계열, 부모, 교사, 가정의 문화 심리적 환경, 학교 문화나 풍토, 교육제도, 입시제도, 학력 중시와 같은 사회적 풍토, 산업·직업구조, 성역할분화, 인력충원제도	리적 요인, 사회구조·제도적 요인
이명애(2007)	흥미와 적성, 전공을 통한 자기개발 가능성, 전공 인기도, 전공 공부의 어려운 정도, 성적 및 전공승인 가능성, 선배나 친구의 권유, 졸업 후와 관련해 고려하는 요인으로 취업의 용이성, 높은 수입과 사회적 지위 보장, 학문분야의 발전 전망	졸업 전, 졸업 후 고려
정보연(2010)	적성, 흥미, 장래희망전공 인기, 취업 전망, 전공 공부의 수월성, 주변인의 권유	개인적동기와 사회적동기

위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추출된 요인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분석한 진로선택 요인과 함께 <표 4>의 전공선택동기 요인의 체계를 구안하는 이론적 근거로 사용하였다.

<표 4>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이상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전공선택동기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전공선택동기란, 전공을 선택하는 행위를 유발한 직접적인 동기로서, 적성과 흥미 등 자기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요인과 주변인의 권유나 입시제도 등 개인 외부의 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요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학업적응성

1) 학업적응의 개념

가. 적응

학업적 적응이 개념에 대해 구체화하기 위해 적응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Piaget(1952,1959,1980)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적응이란 ‘평형화를 유지하기 위해 도식과 새로운 경험을 서로 조정하는 과정’이다. 즉 새로운 경험을 익숙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기존의 지식(도식)을 인지적으로 이해 가능한 상태(평형화 상태)로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신중호 외, 2012) 예를 들어, 미술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적응이란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새로운 교육내용과 환경을 인지적으로 익숙한 것으로 내면화하는 인지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Larzarus(1976)는 적응을 환경 내에서 생존을 위한 개인의 심리학적 투쟁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개인의 요구가 매우 적절하고 그 개인에게 대처에 적합한 자원이 있을 때, 그 개인의 문제해결의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 적응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분하였다. 이 두 가지 측면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함께 일어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응은 사회의 질서, 규범, 규제 등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순응해 가는 소극적인 측면과 환경을 개척해가는 적극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김용래, 1993; 김유경, 1997). 신지영(2000)은 적응이란 개인이 주변 환경과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즉, 한 개인이 그와 관계를 맺고 있는 외부의 환경과 상호 작용하는 가운데, 경우에 따라서 환경의 요구에 맞도록 자신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능동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것이다. 적응에 관한 여러 이론을 종합해 보면 적응은 인지적 관점에서 환경에 순응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변화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보아야 함을 알 수 있다.

나. 대학생활적응

학업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적응의 개념은 대학생활적응,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 등 연구 주제와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적응은 학교적응, 학교생활적응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학업적응, 대학생활적응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술대학 학생들의 학업적응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므로 대학생활적응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구윤희(2007)는 대학생활적응에 대해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을 대학생과 대학환경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생활하면서 학업, 대인관계 및 정서적 측면에서 대학생활에 대처하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적응을 잘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교육적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고 바람직하게 수용하여 긍정적인 태도로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 학업성적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생활적응을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에의 적응’의 네 가지로 나누었다. 학업적 적응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학업 상의 요구에 얼마나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인지적 학습능력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혔을 때의 행동, 학업 환경과 관련된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사회적 적응은 대학이라는 사회적 삶에 적응하는 정도, 안정적이고 지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의 형성,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관리능력, 교수,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

소통 등을 포함하는 능력이다. 개인-정서적 적응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가치 등 개인의 인성형성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자기존재의 본질, 위치, 역할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을 의미하는 능력이다. 대학환경에의 적응은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와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김미애, 이기학, 이보라, 2005). Russell과 Petrie(1992)는 대학생활의 적응을 구성하는 요인을 학업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학업적 요인이란 소질과 능력, 학습능력, 학습동기, 자기효능감과 태도를 말하며 사회적 요인은 사회적 지지로서 개인이 관계 맺고 있는 친구나 가족들의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측면에서의 지지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소는 자기 존중감, 자기 통제, 자아정체감을 말한다. 이들에 의하면 대학생활의 적응결과로 학업에 대해 호의적이며 사회와 개인 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활적응은 대학 환경 속에서의 적응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앞에서 설명한 대학생활적응의 구성요인을 정리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대학생활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

연구자	대학생활적응 하위 요인	분류
Baker와 Siryk(1984)	-학업적응: 학업에 대한 동기, 요구에 부딪혔을 때의 행동, 학업 환경에의 만족감, 시간 관리, 목적의식, -사회적 적응: 대학 적응 정도, 친구나 부모와 같은 사회적 관계의 지원조직, 새로운 사회적 관계 관리능력, 교수, 교우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학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 개인-정서적 적응, 대학 환경에의 적응

	<p>능력</p> <p>-개인-정서적 적응: 학생 간 상호관계성, 삶의 방향, 자기 가치 등 자기탐색과정을 통한 정서적 적응</p> <p>-대학환경에의 적응: 대학에 대한 애착정도, 대학의 질에 대한 만족도, 학업적 목표에 대한 몰입 정도</p>	
Russell과 Petrie(1992)	<p>-학업적 요인: 소질과 능력, 학습능력, 학습동기, 자기효능감과 태도</p> <p>-사회적 요인: 주변사람들의 정서적·물질적·정보적 지지, 개인적 요인: 자기 존중감, 자기 통제, 자아정체감</p>	<p>학업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개인적 요인</p>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여러 환경 중에서도 학업적인 동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학업적응의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연구자들이 논의한 학업에 대한 적응의 하위요인을 종합하면 학습에 대한 동기, 학습에 대한 소질과 능력, 학업 환경 만족감, 시간관리, 분명한 목적의식, 자기효능감 및 태도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업적응에 대한 선행연구

학업적응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개념으로 다양한 요인으로 구성된 대학생활의 환경 중에서도 전공의 학업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개념이다. Baker와 Siryk(1984)은 대학생활적응의 하위 요

인인 학업적 적응의 개념을 다시 구체화 시켜 동기화(motivation), 적용(application), 수행(performance), 학업적 환경(academic environment)의 4가지 하위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동기화(motivation)는 학업적 목적과 수행이 요구하는 태도, 교육적 목적에 대한 의식이 포함된다. 즉 왜 학교에 다니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대학에서의 교육에 대한 개인의 가치 판단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적용(application)은 동기가 얼마나 실제 상황에 잘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것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학업에 몰입하고 있는가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학과공부에 대한 열의, 의욕의 발생빈도, 출석여부 등이 포함된다. 수행(performance)은 학업적인 노력의 성과에 관한 것으로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지, 성적에 만족하는지, 학업을 위한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지를 포함한다. 학업적 환경(academic environment)은 전공 과목과 교수님에 대한 만족도, 학업 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대학의 전반적인 학업 환경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학업적응은 다양한 변인들과 관련을 맺고 있다. 신은숙(1994)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간의 의존성, 자존감, 목적의 안정성, 자기 효능감 등의 개인적 성격특성과 불안특질, 개인적 자아개념, 신체적 자아개념, 가족적 자아개념이 있음을 밝혔다. 서은희(2001)는 ‘장독립-장의존’이라는 개인의 인지양식¹⁾을 학업적응과 관련이 있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인지 양식 별로 대학생들의 학업 적응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전공 계열 별로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공 구분 없이 전체 인지양식 전체 집단 간 비교에서는 장의존적인 학생이 장독립적인 학생보다 학업적으로 더 잘 동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전공선택동기와의 관계 또한 다양한 측면에서

1) 장의존 인지양식(field-dependence)이란 지각과정에서 장, 즉 환경적 배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 환경을 비교적 전체적인 장 속에서 경험하고 반응하려는 경향성을 말하며, 장독립적 인지양식(field-independence)이란 지각과정에서 전체적인 장의 영향을 덜 받아 비교적 환경에 분석적으로 작용하려는 반응경향성을 말한다(서은희, 2001).

논의되었다. 구윤희(2007)는 학부생을 대상으로 전공선택 유형과 학업적 적응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대학 재학 시 학과를 선택할 때에는 흥미와 적성을 우선 고려한 집단의 학업적 적응이 가장 높았으며 학업적 적응의 하위요인인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 모두 흥미와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집단이 지위를 고려한 집단에 비해서 높았다. 학부를 선택할 때에는 흥미와 지위를 모두 고려한 집단이 동기화 측면에서 학업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윤정(2013)은 전공선택동기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가 학업적 적응과 환경적 적응, 사회적 적응을 예측하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밝혔다. 양명희(2010)는 연구에서 자율적으로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들은 대학생활적응도가 떨어짐을 밝혔으며, 반면 오지혜(2016)는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대학생활적응과 학업적응 등 대학에서의 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두 개념 중 전공선택동기와 보다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학업적응을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3. 자아탄력성

1) 자아탄력성의 개념

대학이라는 새로운 학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낯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개인의 내적인 힘으로는 자아존중감 등의 여러 변인들이 강조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자아탄력성이 강조되고 있다(이은석, 2012). ‘탄력성’이란 학문적 용어인 ‘resilience’를 번역한 것으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 또한 포괄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문적으로 탄력성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소아정신과, 심리학 연구에서이

다. Werner(1989,1993)는 하와이 카우아이(Kauai)섬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에서 어렸을 적 심각한 스트레스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발달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한 아동들을 발견하고 이들을 탄력적인 아동(Resilient children)으로 지칭하고 이들의 공통적인 요인을 연구한 것에서 시작되었다(Werner, 1989; 1993) 국내에서는 resilience를 뜻하는 용어로 ‘유연성’, ‘자아탄력성’, ‘극복력’, ‘회복력’, ‘회복탄력성’ 등(김동희, 2003; 김혜성, 1998; 박지아·유성경, 2003, 김주환,2011)으로 명칭과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탄력성에 대한 학문적 관점이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개념인 ‘자아탄력성’은 ‘ego-resiliency’를 번역한 것으로 탄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 중에서도 탄력성을 개인의 성격 유형의 하나로 보는 관점이다(홍은숙, 2006).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Block & Kremen(1996)이 정신분석적 이론에 근거하여 탄력성에 접두사 ‘Ego’를 붙여 제안한 용어로 Block & Kremen 따르면 자아탄력성은 변화하는 상황에 대처, 적응하기 위해 자아통제 수준을 조절하는 메타적인 능력이다. 자아통제란, 사람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충동을 표출하거나 억제하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이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킴으로서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할 수 있다. Block & Kremen(1996)은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은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자아통제력이라는 점에서 스트레스에 저항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탄력성(resiliency) 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Block & Kremen, 1996).

국내에서는 자아탄력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김미향과 김성희(2010)는 자아탄력성을 ‘자신을 잘 조절하고 자신의 문제해결능력을 활용하여 주어진 어려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윤현희 외(2001)은 ‘아동의 내적 특성(자아존중감, 내적 통제력, 자율성 등)들과 환경적인 보호요인(부모의 양육 일관성, 친밀성 등)들이 적절한 수준으로 결합되어 나타나, 아동이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

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특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은석과 김성희(2012)는 자아탄력성이란 '문제 상황을 유연하고 적응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절한 자아통제력을 발휘하는 개인의 역동적인 메타능력'으로 정의하였다.

이상에서 고찰한 자아탄력성의 개념을 종합하면 '내적·외적 스트레스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응 및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자아탄력성은 전공 진입 후 새로운 학업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개인의 성격 특성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진로선택과 관련하여 자아탄력성을 논의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태도성숙, 진로의식성숙, 학교적응과 자아탄력성이 갖는 상관 혹은 영향 관계를 탐구하고 있다. 주정현(2011)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였으며 이들 사이에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윤영미(2009)의 연구에서는 학교 유형별로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자아탄력성은 학교적응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적응을 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권미정(2013)의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연구에서 특성화고 학생들 중 자아탄력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생활적응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발,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심지연(2013)은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자아탄력성의 인과적 관계를 탐구한 결과 대학생의 자아탄력성이 높을

수록 진로의식성숙 수준이 높게 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낙관적이고 안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진로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자신감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진로 프로그램 등의 구체적인 도움을 대학생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아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탄력성은 진로를 결정하는 태도와 의식의 성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교육을 위해서 고려해야할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진학 후 낯선 학업 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성격 요인이므로 전공선택동기와 함께 학업적응을 설명해주는 독립변수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1) 문헌 분석

앞서 II장에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전공선택동기, 자아탄력성, 학업 적응도의 의미와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을 정립하기 위해 학습동기이론과 진로발달이론을 살펴보았으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예고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의 개념과 요소를 구성하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학업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 자아탄력성의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은 대학 진학 후의 전공 교육과정이라는 새로운 스트레스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을 함께 조사함으로써 학업적응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자아탄력성의 이론적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학업적응성의 개념에 대해 이론적 검토를 진행하였다. 학업적응은 예고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전공의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종속변인으로서 의미가 있으며 적응의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였다.

2) 심층 면접

본 연구에서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라는 개념을 정립

하고 실제 어떤 동기가 작용했는지 살펴보고자 안양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서울 소재 예술고등학교의 미술과 강사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대상자를 안양예고에 국한 시킨 것은 본 연구자와 충분한 라포(rapport)형성이 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연구에서는 관찰대상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했는가의 여부가 조사연구의 성공의 관건이 된다(김광기 외 역, 2007).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심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선택 과정에서 고려한 동기와 학과 적응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를 코딩하는 데에는 NVivo10²⁾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전공선택 동기의 요인을 10가지로 추출하였다. 10개의 하위 요인은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의 두 갈래로 체계화 하였다. 체계화된 요인은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강사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체계를 구안하였다.

3) 설문 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서울 시내의 4년제 미술대학 중 3개 학교(S대학교, K대학교, H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서양화, 동양화, 디자인, 조소 4가지 학과의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4학년의 경우 이미 예고에서 전공을 선택한 시점과 시간상 차이가 크며 어느 정도 학업적응이 이루어진 상태로 본 연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제외 하였다. 위의 세 학교를 선정 한 것은 남녀공학으로 남학생의 성비를 고려하기 위함이며 예술고등학교의 학과 구성과 동일한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의 네 개 전공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자료의 수집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달에 걸쳐 진행되

2) 질적자료 분석 프로그램으로 서로 다른 면접자가 행한 면접을 동시에 분석할 수 있다.

었다. 설문조사는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대일로 배포하여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의 목적이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 과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 연구임을 설명 한 후 질문에 답하게 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00부로 100%의 회수율을 보였다. 회수된 설문지에서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289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S대학교 학생은 94명, H대학교 학생은 100명 K대학교 학생은 95명이었으며 총 인원 중 남학생은 40명 여학생은 249명이었다. 미술대학의 특성상 남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과별 참여 인원은 <표 6>과 같다.

<표 6> 연구대상 참여현황

	동양화	서양화	조소과	디자인과	총인원
S대학교	25	22	25	22	94
H대학교	25	25	25	25	100
K대학교	28	22	21	24	95
계	78	69	71	71	289

2. 연구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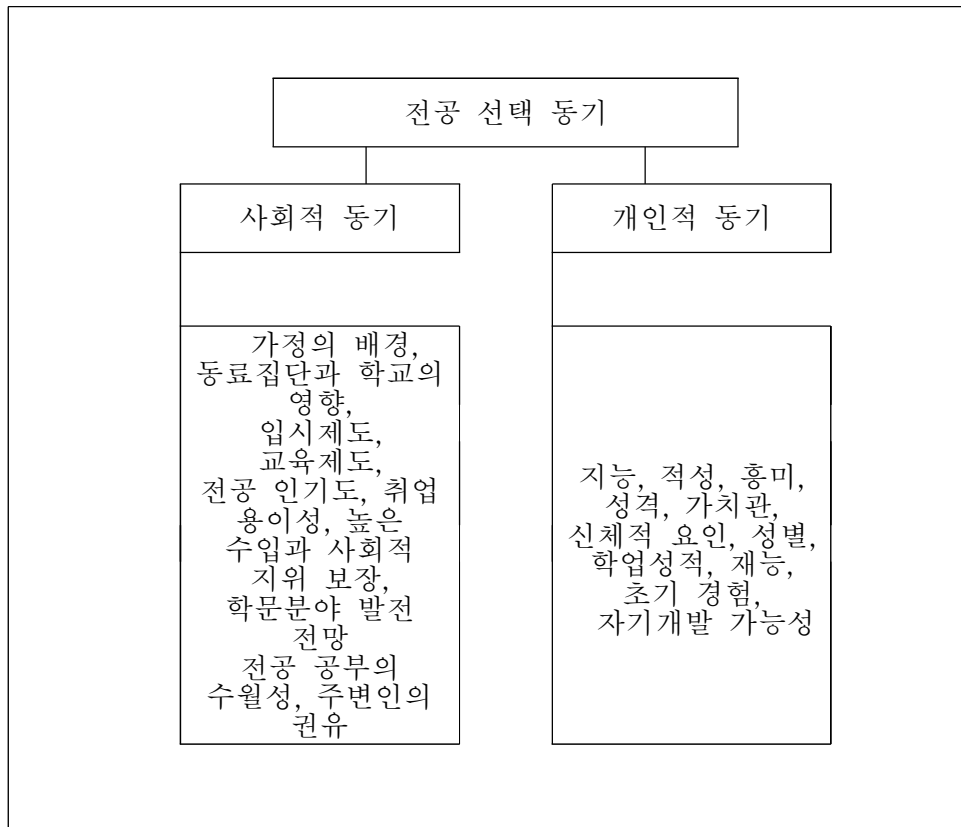
1) 전공선택동기

가. 문헌 분석을 바탕으로 구안한 전공선택동기

문헌 분석을 통해 하위 요인을 모두 추출한 후 이론적 검토를 통해 정립한 ‘전공선택동기’의 개념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요인만을 채택하였다. 전공선택동기는 첫째로 진학의 범위, 특히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등과 같은 미술과 관련된 세부전공을 선택하기 위해 고려한 요인에 한정된 개념이다. 둘째는 진로결정요인이 개인의 진로결정에 미친 간접적이고 무의식적인 영향(예를 들어 사회 계층이나 교육 정책 등)을 포함

한 포괄적인 개념인 것과 달리 전공선택동기는 전공을 결정한 행동을 유발한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요인에 한정한다.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구안한 전공선택동기의 요인 체계는 <표 7>과 같다.

<표 7>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나. 심층 면접을 바탕으로 수정한 전공선택동기

예술고등학교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라는 개념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해 안양예술고등학교 재학생 3명, 졸업생 1명, 서울예술고등학교의 미술과 강사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했다. 대상자를 안양예고에 국한 시킨 것은 본 연구자와 충분한 라포(rapport)형성이 되어 있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질적 조사연구에서는 관찰대상자들과 친밀감을 형성했는가의 여부가

조사연구의 성공의 관건이 된다.(E. Babbie, 1973)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심리적 배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선택 과정에서 고려한 동기와 학과 적응에 대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전공선택 동기의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동기와 개인적 동기의 두 갈래로 체계화 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다음 <표 8>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되었다.

<표 8> 문헌 분석과 심층면접을 바탕으로 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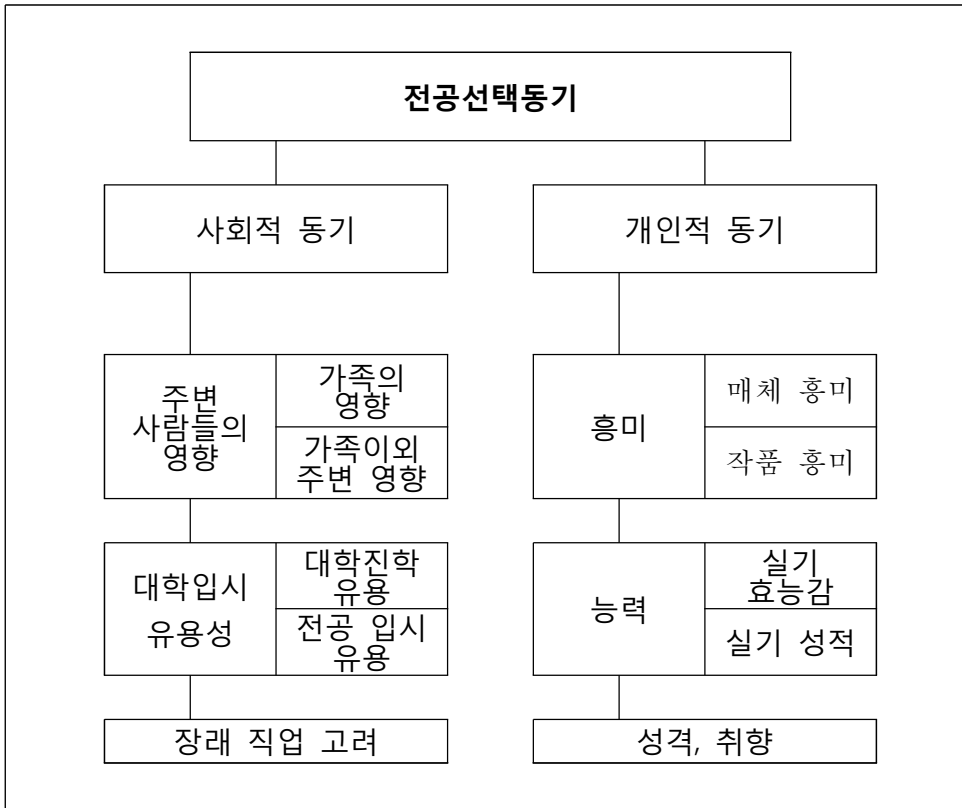
문헌 연구를 통한 1차 요인 추출		인터뷰 내용	인터뷰를 통한 2차 요인 추출
개인적·사회적 요인	하위 요인		
개인적 동기	흥미	“1학년 때 한국화 민화 수업 하다가 찾아보게 되었는데 그림 품이 좋았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다가, 사군자 보다는 채색화가 더 좋았고 그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C학생)	작품 흥미 고려
		“디자인이랑 둘 중에 회화를 하고 싶었다. 원래는 둘 다 하고 싶었는데 회화가 더 나올 거 같아서... 입시미술은 디자인 보다 회화가 그림이 더 좋아보였다.”(C학생)	매체 흥미 고려
	성격, 취향	“일단전공이 너무 안 맞고.. 딱 떨어지게 그려야 되고 이런 게..(B학생)“	성격, 취향
	능력	“보통 성적? 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통 그렇게 선택하는 것 같다. 동양화 점수가 별로였는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자 생각해서 했다. 다 하고 싶거나 다 하고 싶은 게 없거나 했던 애들은 그냥 받은 점수 보고 간다.”(C학생)	성적 고려
“창의적이거나 이러지가 않아서..”(B학생)		효능감	
사회적	주변의 영향	저희 부모님은 거의 신경을 안 쓰시	가족 권유

동기		는 편이었다. 한 친구는 부모님이 서양화를 하라고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은 조소를 선택했다가 결국에 다시 서양화로 간 경우도 있다.(C학생)	
		사실 아빠가 하라고 해서 예고 준비도 한번 해봤고 동양화 선택하라고 하니까..(A학생)	가족 권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하나같이 남자는 취직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디자인해야겠다..“ (B학생)	부모 권유, 교사 권유
	대학입시 유용성	“대학 동기 부분이 큰 것 같다. 경쟁률 그런 것도 있고..“(A학생)	입시 경쟁률
		“흥미가 서양화지만 대학 진학을 고려해서 조소과를 선택했다.”(B학생)	대학 입시 유용
		“초반에 전과했던 애들은 실기가 안 맞아서 전과하는 애들도 있는데 후반에는 대학 때문에 간 거 같아요. 조소에서도 지금 두 명이 이대 갈 수 있다고 해서 나왔거든요.“(B학생)	대학 입시 유용
		“일단전공이 너무 안 맞고.. 딱 떨어지게 그려야 되고 이런 게.. 그리고 창의적이거나 이러지가 없어서..“(B학생)	입시 미술 유용
	미래의 직업 고려	“디자인은 높은 대학 아니라도 나중에 직장 이런 면에서 낫다고 하고..“(A학생)	직업 고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하나같이 남자는 취직해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할 겨를도 없이 디자인해야겠다..“ (B학생)	직업 고려
		“결정적인 것은 커서 디자이너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가 되고 싶었어? 그냥 미술공부를 좀 더 해가지고 큐레이터가 되고 싶었어요. 아 이론? 네 이론. 그럴 바에 디자인과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좋은데 가가지고 복수전공 같은걸 하는 게	직업 고려

	낮지 않았을까.“(B학생)	
--	----------------	--

추출된 요인은 총 10개로 예술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문 강사와 연구자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인 요인 체계를 구안하였다. 이론적 검토와 심층 면접을 통해 구안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체계는 <표 9>과 같다.

<표 9> 문헌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구안한 전공선택동기 요인 체계



각각의 하위 요인의 조작적 정의와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가) 사회적 동기 - 주변 사람들의 영향

‘주변 사람들’은 주양육자나 가까운 친인척, 학교나 학원의 선생님 혹은 친구들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주변사람들의 영향’ 요소는 학생과의 상담, 조언 등을 통한 직접적인 영향에 그 의미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는 개인적이고 내재적인 동기와 구분하기 위함으로 주변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학생 개인의 내면적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사회적(외재적) 동기라기보다는 이미 개인적 동기로 내면화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연구자의 판단에서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에 응한 한 학생의 경우 중학교 저학년 시기에 미술 선생님의 영향으로 한국화 전공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 사례의 경우 선생님이라는 주변 사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전공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다는 선생님이 제공한 학습 경험이 학생의 개인적 흥미와 적성을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사회적 동기 - 대학 입시의 유용성

일반계 고등학교와는 다른 예술고등학교 전공 선택의 특징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선택하는 전공이 대학 입시로 연결되므로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대학입시 유형을 결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진학에 대한 고려도 학생들의 진로 결정 요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디자인과의 특성상 경쟁률이 치열하고 학과 성적도 높아야 하는 반면 조소과의 경우 경쟁률이나 학과 성적, 요구되는 수능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다. 이런 학과 별 대학 진학의 차이점은 학생들의 학과 선택과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한 대학진학이라는 동기를 가진 학생들은 학과 공부의 측면뿐만 아니라 실기라는 또 다른 입시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는 개인적 흥미에서 논의한 매체 흥미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회적 동기 - 장래의 직업 고려

전공은 곧 미래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다.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크게 ‘디자이너-디자인’, ‘비디자이너-회화’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미술 관련 직업의 다양성과 분류상의 불명확성, 그리고 정보의 부족에 기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이 직업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통해 고려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인터뷰를 통해서 알 수 없었으므로 이를 개인적 동기로 보아야 할지 사회적 동기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는 추후 3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 자료를 요인 분석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라) 개인적 동기 - 흥미

흥미는 전공의 ‘매체적 흥미’와 전공 관련 ‘작품에 대한 흥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매체적 흥미는 주로 전공 선택 후에 실기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매체에 대한 흥미와 호감을 말하며 작품에 대한 흥미는 전공 관련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흥미와 호감을 말한다.

마). 개인적 동기 - 능력

능력은 전공 실기 활동에 관련된 것으로 실기효능감과 실기점수라는 두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다. 실기효능감은 자신이 선택하는 전공의 실기를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하고, 실기점수는 실제로 1학년 과정에서 받았던 각 전공과목의 점수를 뜻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이 각 전공과목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느끼는 경우 좋은 평가를 받은 전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다.

바) 개인적 동기 - 성격, 취향

성격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기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성격이나 취향으로 그 의미를 한정한다. 예를 들어 조소 전공은 흙 작업이나 입체 작업을 주로 하므로 상대적으로

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성격적인 요소가 잘 맞는지를 고려해 보게 된다. 자신의 성격이나 취향 등의 성향이 주관적으로 실기의 활동이나 여타 특성과 잘 맞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요인으로 선정되었다.

다. 전공선택동기 요인체계를 바탕으로 개발한 문항

문항번호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흥미	나는 현재 선택한 전공의 재료와 기법에 매력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2		나는 현재 선택한 전공과 관련된 작품에 매력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3	능력	나는 현재 선택한 전공의 실기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4		나는 1학년 때 받은 실기 과목의 점수를 토대로 전공을 선택했다.					
5	성격	나는 평소 성향이나 성격이 전공 실기의 특성과 맞는다고 생각해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6	주변인의 영향	나는 주변 가족이나 친척의 추천 또는 권유로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7		나는 주변의 선생님이나 친구 또는 선배의 추천, 권유로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8	대학진학의 영향	나는 대학 진학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9		나는 미술 대학 입시를 고려해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10	직업	나는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과의 관련을 고려해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2) 자아탄력성

설문조사에 사용된 자아탄력성 척도는 진로 연구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R(Ego-Resiliency Scale)로 이를 유성경(2002)이 번안 후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아탄력성 척도는 14개의 문항(예: 나는 갑자기 놀라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 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점 합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에 개인의 자기-통제 수준으로 다시 돌아오는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조사에서는 자아탄력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의 내적일치도 계수(α)가 .894로 나타났고, 본 조사에서는 .803으로 나타나 양호한 신뢰도 수준을 보였다.

3) 학업적응성

대학 학업 적응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Baker와 Siryk (1989)이 개발, 제작하였고 정은희(1993)가 우리나라 대학 실정에 맞게 번안한 대학 생활 적응 질문지(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를 미술 학과의 학업 내용에 맞도록 단어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정은희(1993)가 번안한 학업적응 척도는 24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4개의 하위척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기화는 대학에 다니는 이유, 대학입학 목적의 인식정도,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 대학 공부의 재미 등의 내용으로 교육적 목적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둘째, 적응은 학과공부에 대한 충실도, 공부하려는 의욕의 발생정도, 강의 출석의 규칙성 등 동기가 얼마나 학업노력으로 전환되는지에 관한

하위목록이다.

셋째, 수행은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 시험기간 중의 생활, 학업성적에 대한 만족도,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등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학업적 환경은 수강하는 과목과 교수님에 대한 만족도,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대한 만족도등 학업적 환경에의 만족도에 관한 것이다.

Baker와 Siryk(1989)가 보고한 도구의 신뢰도 계수 Cronbach α 는 .82~.87이고 번역된 척도(정은희, 1993)의 계수는 .80으로 나타났다.

<표 10> 정은희의 연구에서 학업적응 신뢰도 계수

하위척도	내용	문항	신뢰도
동기화	대학에 다니는 이유, 대학입학 목적의 인식정도,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 대학공부의 재미 등의 내용으로 교육적 목적에 대한 지각	2,7,9,13,19,22	.68
적용	대학에 다니는 이유, 대학입학 목적의 인식정도,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한 자신의 판단, 대학 공부의 재미 등의 내용으로 교육적 목적에 대한 지각	1,6,12,18	.58
수행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는 정도, 시험기간 중의 생활, 학업성적에의 만족도, 공부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의 여부	3,4,5,8,10,11,15,16,20	.73
학업적 환경	수강하는 과목과 교수님에 대한 만족도,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대한 만족도등 학업적 환경에의 만족	14,17,21,23,24	.78
전체			.86

학업적응 척도의 문항에 사용된 용어를 미술 전공의 학업에 맞도록

<표 11>과 같이 일부 수정, 보완하였다. 적용과 수행의 하위 문항에서 ‘공부’라는 단어가 미술 전공의 학업 내용을 충분히 포괄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전공 과제’, ‘전공에서의 작업’ 등으로 변경했으며 ‘대학 공부’ 역시 대학에서의 학업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로 변경하였다. 미술대학의 ‘시험기간’은 이론 관련 수업 외에는 과제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험기간이나 과제발표’로, ‘수강과목의 보고서’ 역시 ‘수강과목에서의 과제발표나 보고서’로 수정·보완 하였다.

<표 11> 학업적응 척도 문항 변경

번호	문항 내용	
16	적용	나는 공부를 밀리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다. -> 나는 전공 과제를 밀리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다.
19		나는 학과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 나는 전공 과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20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 나는 최근에 전공 과제를 수행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1		나는 대학공부가 어렵게 느껴진다.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이 어렵게 느껴진다.
3		나는 시험기간 중에는 잘 지내지 못한다. ->나는 시험기간이나 과제발표가 다가오면 잘 지내지 못한다.
6	수행	나는 나의 학업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나는 나의 전공 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9		나는 사실 해야 되는 공부를 해 낼 만큼 머리가 좋지는 못하다. ->나는 사실 해야 되는 과제를 해 낼 만큼 능력이 좋지는 못하다.
10		나는 최근에 공부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나는 최근에 전공과 관련된 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2		나는 수강과목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나는 수강과목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15	나는 최근에 공부하려고 할 때 주의 집중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나는 최근에 전공 관련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집중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

1차 수정·보완된 설문조사도구는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박사과정 학생 1명, 미술대학 석사과정 학생 1명, 사범대학 미술교육 전공 석사과정 학생 3명에게 각 문항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자문하는 절차를 가졌으며 큰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술대학 학부 재학생 33명을 대상으로 파일럿 조사를 실시하였다. 신뢰도 계수는 .89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최종적인 설문지에 사용하였으며 본 조사 후 전체 표본 집단 수준에서 신뢰도 검사를 한 번 더 실시한 결과 .87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3. 자료 분석 방법

설문 조사 결과는 SPSS 18.0을 사용하여 다음의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예술고등학교에 맞게 구안한 전공선택동기 척도의 각 문항간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서로 관련도가 높은 문항끼리 묶어 세 개의 하위 요인인 흥미·적성, 타인의 평가·영향, 입시 수월성으로 유목화 하였다.

둘째, 전공선택동기의 각 요인과 자아탄력성, 학업적응도를 구성하는 질문 문항이 얼마나 신뢰로운지를 평가하기 위해 신뢰도 검사(Cronbach α)를 실시하였다.

셋째, 전공선택동기의 세 가지 하위 요인과 자아탄력성 학업적응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Corelation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학업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전공선택동기

1) 도구의 타당성 검증

타당도 검증은 검사가 측정하고자 하는 속성이 얼마나 충실하게 측정되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본 연구에서 타당도는 검사의 구성요인이 적절하고 타당하게 구안되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가. 요인분석

요인분석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상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서로 묶어 하나의 내재된 요인(요인1, 요인2 등)으로 추출하는 것으로 수많은 변수들의 공통적 특성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유목화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설문도구의 개발에서 요인 분석은 서로 상관성이 높은 문항들을 하나의 잠재적인 요인(요인1, 요인2)들로 묶은 다음, 그러한 잠재적인 요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명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전공선택동기의 10개 문항을 공통성이 높은 문항끼리 묶어 몇 가지의 새로운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요인을 통해 전공선택동기를 이루는 문항이 통계적으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다. 또한 10개의 문항을 단순화함으로써 기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즉 간결해진 데이터를 가지고 전공선택동기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 방법으로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 적재치는 0.60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배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전공선택동기의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요인구조행렬 (0.6 이상 표시)

항목	공통성	성분			비고
		1	2	3	
1번	.561	.737			매체흥미 작품흥미 실기효능감 성격
2번	.648	.800			
3번	.584	.763			
5번	.676	.665			
4번	.494		.686		
6번	.561		.754		
7번	.871		.676		
8번	.854			.754	대학 진학 유용성 입시 미술 유용성
9번	.494			.676	
10번	.	.438	.453	-.209	장래직업 - 제거
요인명		적성과 흥미	타인의 평가·영향	대학진학 유용	
Kaiser-Meyer-Olkin 측도(KMO)		.677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x^2		728.2	
		자유도		28	
		p		.000***	

$p^* < 0.1$, $p^{**} < 0.05$, $p^{***} < 0.01$

위와 같이 총 9개의 변인이 추출되었으며, 서로 관련도가 높은 문항끼리 세 개의 하위 요인으로 묶였다. 이 중 요인 1(문항 1번, 2번, 3번, 5번 문항)은 흥미·적성으로 요인 2(문항 4번, 6번, 7번)는 타인의 평가·영향으로 요인 3(문항 8번, 9번)은 대학진학 유용성으로 명명하였다. 사회적 동기의 직업고려 항목이었던 10번 문항은 요인 분석 결과 제외되었다. 10번 문항은 전공을 선택할 때 장래의 직업을 고려하여 선택하였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10번 문항을 제외 할 수 있는 근거는 직업 선택이라는 개념 역시 흥미와 적성이나 주변의 영향을 포함한 것으로 나머지 9가지의 항목이 묻는 개념과 중복된 개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항목에서 제외하여도 무방하다는 연구자의 판단에 의해서이다. 또한 기존에 개인적 동기의 능력 요인으로 판단된 실기성적 문항은 가족의 권유, 가족외의 권유 항목과 함께 타인의 평가 요인으로 묶였다. 이는 실기 성적이 곧 학

생 개인의 능력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성적이 곧 평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타인의 평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요인분석에서 제시되는 상관계수의 행렬이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KMO가 1에 가까울수록 요인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67로 적합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인 728.2가 .00수준에서 유의미하므로 이 역시 요인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신뢰도 분석

전공선택동기의 각 하위 영역이 신뢰롭게 동기를 측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전공선택동기 전체 문항과 각 영역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 검사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측정한다고 했을 때, 그 측정 문항의 내부에 측정하고자 하는 바와 상관도가 떨어지는 문항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성을 확인하는 검사이다. 이때 사용되는 계수가 크론바흐 알파(Cronbach α) 값이며 일반적으로 값이 0.6이상이 나오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별한다.

<표 13> 전공선택동기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사결과

구분	하위구분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 α
전공선택동기	흥미·적성	1,2,3,5	.74
	타인의 평가·영향	4,6,7	.63
	입시 유용성	8,9	.89
전공선택동기		총 9 문항	.65

전공선택동기의 신뢰도 검증 결과 .65로 0.6 이상이 나왔으므로 신뢰할 수 있는 척도임을 확인하였다. 적성·흥미 요인의 크론바흐 알파 계

수는 .74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타인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계수는 .63로 역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입시유용성 요인에 대한 신뢰도 검증 결과 0.6이상인 .89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확정된 전공선택동기의 요인 체계

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최종 확정된 미술적성검사의 요인구조는 다음 <표 14>와 같다.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구성되었던 기존의 2 요인 체계에서 3 요인 체계로 바뀌었으며, 기존 10개의 하위 항목 중 직업 고려 항목이 제외되어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흥미·적성에는 3개의 항목을, 타인의 평가와 영향에는 3개의 항목을 포함하였으며 입시유용성에는 2개의 항목이 포함된다. 요인 개발 초기안에 비해 수정된 사항은 2개의 요인 체계가 3개의 분류로 나뉘었으며 직업고려 항목이 제외되고 실기 성적 문항이 타인의 평가 요인으로 이동하였다.

<표 14> 요인분석을 통해 변경된 요인 체계



2) 전공선택동기 검사 결과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술대학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5>와 같았다.

<표 15> 예고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N=289)

구분	하위항목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순위
흥미·적성	매체 흥미	3.90	0.89	1
	작품 흥미	3.85	0.91	3
	실기 효능감	3.84	0.89	4
	성격 취향	3.86	0.88	2
타인의 평가·영향	가족 권유	2.46	1.29	9
	가족 외 권유	2.63	1.24	6
	실기 성적	2.61	1.32	7
입시 유용성	대학진학유용	2.65	1.29	5
	전공입시유용	2.48	1.26	8

전공선택동기는 항목별로 2.4~3.9으로 나타났다. 9개의 하위항목 중에서도 매체 흥미가 가장 높은 3.9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다음으로 성격·취향, 작품흥미, 실기 효능감의 순서로 높았다. 전체적으로 흥미·적성 요인의 평균이 높게 나와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에 가장 크게 작용한 동기는 흥미와 적성임을 보여주었다. 반면, 타인의 평가·영향 요인의 하위 항목인 가족의 권유는 2.46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 전공입시유용성, 실기성적의 순서로 낮게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 할 때 평균적으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이나 입시와 같은 외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

1) 자아탄력성

가. 신뢰도 검증

본 조사에서 자아탄력성 척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크론바흐 알파 값이 0.6 이상인 .80으로 나타나 신뢰로운 검사도구임이 판명되었다.

<표 16> 자아탄력성 신뢰도 검증

구분	문항수	신뢰도 Cronbach α
자아탄력성	총 14문항	.80

나. 자아탄력성 검사 결과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술대학 학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17>과 같다.

<표 17> 예고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자아탄력성 (N=289)

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자아탄력성	3.52	.50

자아탄력성은 평균값이 3.52점으로 보통(3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이는 심지연(2013)의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이공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아탄력성 검사의 평균치인 3.53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2) 학업적응성

가. 신뢰도 검증

학업적응도 검사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업적응 전체 문항의 내적일치도 계수가 .87로 나타나 신뢰할 수 있으며 네 가지 하위 항목인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에서도 계수 값이 0.6 이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도구임이 판명되었다.

<표 18> 학업적응성 검사도구의 신뢰도 검사결과

구분	하위구분	문항번호	신뢰도 Cronbach α
학업적응도	동기화	2,4,5,7,8,14	.63
	적용	16,19,20,23	.66
	수행	1,3,6,9,10,12,15,18	.76
	학업적 환경	11,13,17,21,22	.75
학업적응	총 24문항		.87

나. 학업적응도 검사 결과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술대학생들의 학업적응도와 하위 항목의 검사 결과는 다음 <표 19>과 같다.

<표 19> 예고 출신 미술대학생들의 학업적응성 (N=289)

구분	하위항목구분	평균(M)	표준편차(SD)	순위
학업적응도	동기화	3.20	.61	2
	적용	3.38	.75	1
	수행	3.18	.63	3
	학업적 환경	3.11	.73	4
학업적응도		3.21	.53	

학업적응도 전체 항목의 평균 점수는 3.21로 오지혜(2016)의 연구에서 예체능 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점수인 3.40에 비해 다소 낮은 점수이다. 하위 항목 중 ‘적용’의 평균이 3.3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학업적 환경이 3.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전공선택동기, 학업적응성, 자아탄력성의 상관관계

1)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적응성의 상관분석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적응성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다. 상관계수의 해석에 대한 절대적 기준은 없으나 본 연구에서는 Davis(1971)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표 20> 피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상관정도 판단 기준

상관 계수	상관정도 해석
1.0	완전한(perfect) 상관
0.7 이상	매우 높은(very strong) 상관
0.50 ~ 0.69	높은(substantial) 상관
0.30 ~ 0.49	중간(moderate) 상관
0.10 ~ 0.29	낮은(low) 상관
0.01 ~ 0.09	매우 낮은(negligible) 상관

자료: Davis J.A.(1971), Elementary survey analysis, NJ: prentice-Hall

상관계수가 0.09 이하는 상관관계가 매우 낮다고 보고 0.1에서 0.29는 낮은 상관관계, 0.3에서 0.49는 중간 상관, 0.5에서 0.69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적성과 흥미는 학업적응과 0.33의 중간 정도의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수준이었다. 타인의 영향은 학업적응과 -0.04의 매우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별되었다. 입시유용성은 0.02의 매우 낮은 상관으로 나

타났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공선택동기의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학업적응과 상관이 있는 요인은 적성·흥미 요인이 유일했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입시의 유용성, 타인의 영향 보다는 적성과 흥미를 동기로 선택 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표 21> 적성·흥미, 입시·유용성, 타인의 영향, 학업적응 상관분석

	적성·흥미	입시·유용	타인영향	학업적응
적성·흥미	1	.00	.00	.33**
입시·유용	.00	1	.00	.02
타인영향	.00	.00	1	-.04
학업적응	.33**	.02	-.04	1

$p^* < 0.1$, $p^{**} < 0.05$, $p^{***} < 0.01$

적성·흥미 요인을 구성하는 하위 항목이 학업적응과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2> 적성·흥미 하위요인과 학업적응 상관분석

	매체·흥미	작품·흥미	실기·효능감	성격·취향	학업적응
매체·흥미	1	.50**	.36**	.36**	.23**
작품·흥미	.50**	1	.48**	.41**	.22**
실기·효능감	.36**	.48**	1	.40**	.34**
성격·취향	.36**	.41**	.40**	1	.18**
학업적응	.23**	.22**	.34**	.18**	1

$p^* < 0.1$, $p^{**} < 0.05$, $p^{***} < 0.01$

적성·흥미의 하위 항목 중 학업적응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항목은

0.34의 유의한 값을 나타낸 실기효능감으로 중간정도의 상관이 있었다. 나머지 항목은 매체 흥미(0.23), 작품 흥미(0.22), 성격·취향(0.18) 순으로 낮은 정도의 상관을 나타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 전공의 실기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기효능감’에 따라 전공을 고려하는 것이 학업에 적응하는 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적성·흥미 항목이 학업적응의 하위 항목과는 어떤 상관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고자 학업적응의 네 가지 하위 항목(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3>와 같았다.

<표 23> 학업적응 하위요인과 적성흥미 상관분석

	동기화	적용	수행	학업적 환경	적성흥미
동기화	1	.49**	.47**	.58**	.34**
적용	.49**	1	.57**	.29**	.19**
수행	.47**	.57**	1	.36**	.21**
학업적 환경	.58**	.29**	.36**	1	.26**
적성흥미	.34**	.19**	.21**	.26**	1

적성·흥미 항목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학업적응 요인은 동기화 항목으로 0.34로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학업적 환경 항목이 0.26, 수행 항목이 0.21, 적용 항목이 .19의 순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가장 큰 관련이 있는 전공선택동기는 적성과 흥미이며 학업적응의 하위 항목 중에서도 동기화와 가장 상관이 있었다. 동기화(motivation)는 학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왜 학교에 다니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목적의식과 태도 등을 의미하는 항목이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동기부여의 측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적성·흥미,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의 상관관계

학업적응과 유일하게 유의한 상관이 있는 요인인 적성·흥미 요인과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4> 적성·흥미, 자아탄력성과 학업적응 상관분석

	학업적응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학업적응	1	.38**	.33**
자아탄력성	.38**	1	.29**
적성·흥미	.33**	.29**	1

예고 출신 미대 학생들의 학업적응은 자아탄력성과 0.38의 중간 정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성·흥미는 0.33으로 자아탄력성 보다는 약간 낮았으나 역시 중간정도의 상관을 보였으며 유의한 수준이었다.

3) 학업적응,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진로교육경험 상관분석

학업적응과 유의한 상관을 보인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요인과 진로교육경험의 상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5> 학업적응,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진로교육경험 상관분석

	학업적응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진로교육경험
학업적응	1	.38**	.33**	.13*
자아탄력성	.38**	1	.29**	.22*
적성·흥미	.33**	.29**	1	.07
진로교육경험	.13*	.22*	.07	1

학업적응과 진로교육경험의 상관계수는 모두 유의한 수준을 나타냈다. 학업적응은 자아탄력성과 중간정도의 상관인 0.38, 적성·흥미와는 중간정도의 상관인 0.33, 진로교육경험과는 가장 낮은 0.13의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학업적응은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진로교육 경험 순으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다. 학업에 잘 적응하는 데에 관련이 가장 높은 요인은 개인의 적응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이었고 다음으로 전공선택 시에 적성과 흥미를 많이 고려하는 것이었다. 진로관련 교육경험의 정도도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학업적응과 관련을 보여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설명해주고 있다.

4. 학업적응에 적성·흥미, 자아탄력성, 진로교육경험이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학업적응과 상관성이 확인된 변수인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동기, 진로교육경험의 세 가지 변인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중다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선형 회귀분석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밝히고자 할 때 사용한다. 즉 독립변수(X_1 , X_2 , X_3 , ...)들과 종속변수(Y)를 하나의 함수식으로 만들어 각각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 둘 사이에 영향관계가 성립되는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인 학업적응(Y)에 자아탄력성(X_1), 적성·흥미(X_2), 진로교육경험(X_3)이라는 세 개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와 상대적 영향력의 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 <표 26>과 같다.

$$p^* < 0.1, p^{**} < 0.05, p^{***} < 0.001$$

<표 26> 학업적응에 적성·흥미, 자아탄력성, 진로교육경험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모형	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p	F	R ² (adj R ²)
		B	표준 오차	β				
학업적응에 미치는 요인	(상수)	2.04	.21		9.71	.00***	22.99***	.19(.19)
	적성·흥미	.12	.30	.24	4.28	.00***		
	자아탄력성	.31	.06	.30	5.23	.00***		
	진로교육경험	.02	.02	.05	0.91	.36		
종속변수: 학업 적응								

분석 결과 적성·흥미, 자아탄력성, 진로교육경험의 세 가지 변수가 추가 함께 투입되어 학업적응을 19%(수정된 R²) 정도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R²값은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는지를 나타내 주는 지수로서 값은 0에서 1 사이에 있으며, 종속변수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을수록 1에 가까워진다.³⁾ F값은 회귀분석에서 제시된 모형이 적합한 수준인지를 판별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값이 22.99로 나타나 유의수준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판별되었다. 따라서 회귀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적성·흥미, 자아탄력성은 학업적응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회귀모형을 통해 학업적응을 예측하는 독립변수들(적성·흥미, 자아탄력성, 진로교육경험)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 수 있다. 영향력의 차이는 각 변수의 베타값(β)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에서는 자아탄력성이 0.30으로, 적성·흥미가 0.24로, 진로교육경험이 0.02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아탄력성과 적성·흥미의 베타값(β)은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였으나 진로교육경험은 유의한 수준은 아

3) R²의 값이 클수록 회귀모형(회귀식)의 유용성이 높은 것으로 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분야의 일반적인 주제는 Cohen의 레퍼런스를 기준으로 0.13 이상이면 적당한 것으로 본다.

니었다. 따라서 학업적응에 대한 영향력은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순으로 높으며 이 두 변인은 학업적응과 직접적인 영향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종합 분석 및 논의

1) 요인분석 관련 논의

먼저 문헌 분석을 통해 개인적 동기와 사회적 동기로 분류했던 전공선택동기의 구성 체계는 요인분석을 통해 ‘적성·흥미’, ‘타인의 평가와 영향’, ‘대학진학 유용성’의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분류되었다. 초기안에서 개인적 동기의 ‘능력’ 영역으로 분류되었던 ‘실기 성적’은 함께 분류되어 있던 ‘실기효능감’, ‘흥미’, ‘성격과 성향’ 등의 개인 내적인 항목보다는 ‘가족의 권유’, ‘가족 외 주변인의 권유’ 등과 같은 사회적 동기 항목에 더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주변인의 권유를 묻는 항목과 함께 묶어 ‘타인의 평가와 영향’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전공선택동기를 구성하는 하위 항목의 특성을 추측해 볼 수 있게 한다. 실기 성적의 경우, 문헌분석과 학생 및 교사 인터뷰를 거쳐 ‘능력’이라는 개인적 동기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표본집단을 대상으로 한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다른 개인적 동기와의 상관도 보다 타인의 권유와 관련된 개인 외적인 동기들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예상 밖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실기성적을 실제로 자신의 능력이라고 인식하기 보다는 타인의 평가인 개인 외적인 동기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반면 요인분석에서 실기효능감은 흥미나 성격과 같은 개인 내적 동기들과 함께 분류되었다. 요인분석의 원리상 이는 실기성적과 실기효능감은 상관도가 없음을 의미한다. 즉 학

생들은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체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실제 실기 점수를 관련지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행하게 될 실기 활동과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실기 활동에 차이가 있음을 알고 고등학교에서 받은 실기 성적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고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초기 안에서 하나의 요인이었던 '장래의 직업'은 0.6이하의 상관을 나타내어 다른 항목들과 함께 묶이지 못하였다. 요인분석에서 '장래의 직업'은 '적성·흥미', '타인의 평가 및 영향' 요인과 각각 0.4, 0.42의 중복된 상관을 보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래의 직업'을 고려했는지를 묻는 문항이 중복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즉, 장래의 직업을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했는지 묻는 문항은 개인의 적성과 흥미, 타인의 평가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했는지를 중복적으로 묻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물음일 수 있다. 단일한 개념을 묻는 문항이 아니기에 내용타당도가 낮은 문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내용타당도는 문항이 본래 측정하고자 의도한 속성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래의 직업'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해 선택되지 않았으므로 '구인타당도' 측면에서 충족되지 못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내용타당도'의 측면에서도 삭제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상의 요인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안된 예술고등학교 미술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의 요인 구조는 다음 <표 27>과 같다.

<표 27> 예술고등학교 미술과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요인 구조



최종적으로 구안된 요인을 가지고 예고 출신 미대생의 전공선택동기의 정도를 조사한 결과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인은 흥미와 적성임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인 항목은 '타인의 평가·영향' 요인의 '가족의 권유'였으며 '입시유용성', '실기 성적' 순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즉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어 전공을 선택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유나 전공이 대학 입시에 얼마나 유리한지 등과 같은 개인 외적인 요인은 상대적으로 적게 고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고 출신 미대생들의 자아탄력성을 조사한 결과, 평균 3.52로 나타나 '보통(3점)'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

며 학업적응도의 평균은 3.21로 나타나 역시 ‘보통(3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업적응도의 하위 항목 중에서도 학업에 대한 동기가 실제 학업노력으로 전환되는지에 관한 항목인 ‘적용’ 항목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상관분석 관련 논의

전공선택동기의 하위 항목들 중에서 학업적응도와 상관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적성·흥미로 나타났으며 입시 유용성이나 타인의 영향 및 평가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전공을 선택할 때는 입시의 유용성, 타인의 영향 보다는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선택 하는 것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있어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구윤희(2007)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연구에서는 흥미나 적성을 우선으로 고려한 집단의 학업적응이 모두 고려하지 않은 집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해당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 번째로 구윤희(2007)의 연구는 다양한 전공을 포함한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그 결과가 미대생들에게도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흥미와 적성’을 ‘흥미’, ‘효능감’, ‘성격’이라는 보다 세부적인 차원에서 학업적응과의 상관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성·흥미의 하위 항목 중 학업적응과 가장 큰 상관을 나타낸 항목은 실기효능감이었다. 따라서 자신이 해당 전공의 실기 활동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기효능감’에 따라 전공을 고려하는 것이 학업적응을 위해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성격이나 전공에 대한 호감 보다도 해당 전공의 표현활동에 대한 자신감,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전공선택의 중요한 조건임을 의미한다. 효능감은 실제

수행능력이 아닌 자신의 수행에 대한 믿음이다. 이는 다시 말하면 학생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전공이 있고, 이에 잘 적응하고자 한다면 해당 전공의 실기 수행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스스로의 발전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효능감과 학업적응은 장경문(2005)의 연구에서도 높은 상관을 나타냈는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적응’이 0.60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현재 학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조사하여 상관성을 밝혀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때의 전공영역에 대한 효능감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과도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고 출신 미대생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대학생 전반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적성과 흥미는 학업적응의 하위 항목 중에서도 동기화와 가장 큰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화는 학업에 대해 동기부여를 잘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선택은 이런 동기화의 측면과 관련성이 있었다. 이를 해석하면,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한 전공선택은 대학에서의 학업적응과 긍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특히 스스로 동기부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선행조건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같은 결과는 흥미와 적성을 모두 고려한 집단이 동기화의 측면에서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구윤희(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미술이라는 전공 영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진로교육경험과 학업적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교육경험은 학업적응과 낮은 정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정도지만 상관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진로교육의 목적이 학생들의 올바른 진로결정을 돕고 새로운 진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생각해볼 때 낮은 정도의 상관으로는 예고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로교육이 충분히 효과적이지 못하다고도 볼 수 있다. 설문조사에서는 학생들의 실제 진로교육경험이 평균 5회 이하로 조사되었

는데 이는 예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진로교육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진로교육은 각 전공영역의 표현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의 학업과정, 나아가 관련 직업과도 연계된 양질의 교육내용이어야 할 것이다.

3) 회귀분석 관련 논의

최종적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적성·흥미 요인,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성과 흥미가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송윤정과 조규판(2016)의 적성, 흥미, 능력 등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 대학생활적응은 학업적응과 생활적응을 포함하는 보다 큰 개념이므로 전공선택동기와 학업적응의 영향관계와 직접적인 대응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송윤정과 조규판(2016)의 연구는 대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예고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차원에서도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업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탄력성, 적성·흥미 순으로 높았다. 이는 학업적응에 학생 개인의 적응력인 자아탄력성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아탄력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서 적성과 흥미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학업 적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의 권유나 대학 입시를 고려하는 것 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 할 때 학생들은 대학에서 만나게 될 낯선 학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 반대로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했다라도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학업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공선택동기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고에서의 진로지도에서 중요한 점은 첫 째, 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이해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각 전공의 특성을 아무리 잘 이해한다고 해도 이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흥미와 적성은 매체에 대한 흥미, 작품에 대한 흥미, 자신의 성격과 취향, 실기 효능감 등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학생 자신에 대한 이해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어떤 매체적 특성에 흥미를 느끼는가?’, ‘어떤 작품 경향을 보고 마음이 이끌렸는가?’, ‘특정 미술 분야의 특성과 관련하여 나의 성격은 적합한가?’, ‘나는 어떤 미술활동에 자신이 있는가?’ 와 같은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다. 진로지도는 단순히 전공의 특성만을 경험하게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특성이 나의 진로결정에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안내해야한다. 즉 전공 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하여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의 내적 동기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을 포함한 타인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하는 것 보다 자신의 내적 동기로 인한 선택이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진로 교육이나 상담 시에 내적 동기를 강조해야 한다. 통계 분석 결과에서는 타인의 권유에 의한 전공 선택이 학업적응과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을 갖지는 않았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적지 않은 학생들이 가족이나 교사의 권유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때때로 전공 선택 이후 중도에 과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확실한 것은 내적동기로 인한 전공 선택이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려하는 다양한 동기들을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하고 어떤 것에 더 높은 가치를 둘 것인지 이해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학생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지도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적성·흥미 동기보다 학업적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 했더라도 자아탄력성이 낮다면 선택한 전공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진로지도의 목적이 학생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에 계속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함에 있다면 진로와 관련하여 중요한 태도이자 능력인 자아탄력성을 간과 할 수 없다.

이상에서 연구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예술고등학교의 진로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예술고등학교는 학생들이 대학 진학 후 학업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자신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의 진로교육을 보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고에서의 진로교육의 내용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며 진로 지도에 있어서는 내적동기와 외적 동기를 구분하여 내적 동기에 의한 진로결정을 격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진로 적응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아탄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상담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공선택동기의 개념과 구성요인에 대한 문헌분석과 학생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요인 체계를 구성하였으며 자아탄력성과 학업적응성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구성한 설문지를 예고 출신의 미술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장 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의 중요한 개념들에 대해 살펴 보았다.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고 선행연구 결과를 검토하였다.

III장에서는 예고출신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방법을 검토하였다. 전공선택동기 검사 도구는 문헌분석과 심층면접을 통해 직접 구안하였으며 자아탄력성 척도는 Block과 Krem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척도 ER(Ego-Resiliency Scale)를 유성경(2002)이 번안 후 수정 및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 학업적응 척도는 Baker와 Siryk (1989)이 개발, 제작하였고 정은희(1993)가 우리나라 대학 실정에 맞게 번안한 것을 미술 학과에 맞도록 용어를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연구대상은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서울 시내 4년제 미술대학 학생들로 서양화, 동양화, 조소, 디자인의 4개 학과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 학업적응도를 5점 척도로 체크하게 하였으며 분석 도구는 SPSS20을 사용하였다.

IV장에서는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교 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 학업적응성, 진로교육경험 정도를 파악했으며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자아탄력성과 학업적응성, 진로교육경험 간의 상관

및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첫째로, 요인분석을 통해 전공선택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의 특성을 이해 할 수 있었다. 10개 하위 문항을 공통성이 높은 문항끼리 묶어 적성·흥미, 타인의 평가와 권유, 입시 유용성이라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적성·흥미 요인은 작품과 매체에 대한 ‘흥미’와 실기효능감, 성격이나 취향 같은 ‘적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타인의 평가와 권유 요인은 가족이나 주변인의 권유나 선생님의 평가를 의미하는 실기성적으로 구성되었다. 입시 유용성으로 명명한 세 번째 요인은 대학 진학이나 실기 전형 등을 고려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하여 전공선택동기의 10가지 항목이 세 개의 공통적인 특성을 가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상관분석을 통해 학업적응과 관련이 있는 전공선택동기를 찾을 수 있었다. 학업적응은 적성·흥미와 상관이 있었으며 적성·흥미의 하위 항목 중 실기효능감과 가장 큰 상관성을 나타냈다. 타인의 권유·평가와 입시유용성은 대학에서의 학업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공을 선택할 때 입시에 유리한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고려하는 것 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라는 내적 동기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대학에서 학업적응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적절한 선택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고에서의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학생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진로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전공을 선택하기 전인 1학년 시기에는 대학에서 배우게 될 전공학업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고등학교 시기와 대학에서의 학업에 괴리감을 줄이고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과 연계된 내용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해 학생들의 전공 이해도를 높여주어야 할 것이다. 진로교육경험과 학업적응은 낮은 정도이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에서 경험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대학에서의 학업적응에 있어서 의미 있는 경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상관분석 결과를 볼 때 현재 예고에서 제공되는 진

로교육이 학생들이 새로운 학업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충분히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 적성·흥미,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영향관계가 있었다. 학업적응에 대한 상대적 영향력은 자아탄력성이 적성·흥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전공을 선택했다라도 자아탄력성이 낮으면 학업에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에 따라 전공선택동기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가족이나 친구 등 타인의 권유나 대학 입시를 고려하는 것 보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공을 선택 할 때 학생들은 대학에서 만나게 될 낯선 학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예고에서의 진로지도는 학생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에 흥미를 느끼는지 등을 파악하도록 돕고 이에 따라 전공을 선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또한 학생 개인의 자아탄력성을 높여주는 진로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지도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미술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와 자아탄력성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미술대학의 특성상 여성의 비율이 높아 성별의 고른 표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남녀 전체의 특성으로 일반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연구 대상자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75%) 여학생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예술고등학교 출신 미술대학생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미술대학의 동양화, 서양화, 조소, 디자인 4개학과를 각각 25%의 비율로 표집 하였으나 최근 미술대학의 융합되고 다양화되는 학과 재편의 경향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당초 연구의 목적은 실제 예술고등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므로 4개학과

로 편성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4개 학과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설명하는 표본으로 국내 모든 미술대학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개학과 이외의 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을 고려하여 미술대학의 대표성을 확보한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보다 최신의 경향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공 선택 시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적성과 흥미란 해당 전공의 재료와 기법에 대한 흥미와 관련 작품에 대한 흥미, 실기효능감, 성격과 성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예술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각 전공의 매체적 특성과 작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흥미와 소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질 높은 전공이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자신의 성격과 성향을 이해할 수 있는 상담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공이해 교육을 바탕으로 경험한 전공의 특성이 자신의 성격이나 성향과 맞는지 고려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은 진로 상담이나 지도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타인의 권유나 대학입시 같은 외재적 동기를 고려하기 보다는 자신의 흥미와 소질, 성격과 같은 내면의 동기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구함으로써 예술고등학교에서의 효과적인 진로지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계현 외(2013). 상담학개론. 서울: 학지사.
- 김광기 외 역(2007). 사회조사방법론. ThomsonLearning.
- 김주환(2011). 회복탄력성. 고양: 위즈덤하우스.
- 신종호 외 역(2012). 교육심리학. 서울: 학지사.
- 한국교육개발원(1989). 고등학교 진로교육 지도안. 한국교육개발원.
- 강혜영(2008). 사회학습이론의 이해와 한국진로상담에의 적용. 제7회
진로개발 직업상담 콜로키움 자료집. 3-20.
- 김동희(2003). 만성질환아의 극복력(resilience) 측정도구개발. 연세대
학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 김미애, 이기학, 이보라(2005). 외향성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인으로. 학교심리학회, 2(1), 99-103.
- 김미향, 김성희(2010). 자아탄력성 척도개발. 상담학연구, 11(1), 189-206.
- 김세훈(2015). 문화예술분야의 경제적 가치측정 연구 경향 분석. 문화산
업연구, 15(3), pp.9-19.
- 김용래, 이혜원(1996). 평가적 차원의 태도 구조탐색 및 적응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교육연구논총, 제13집, 5-26.
- 김유경(1997). 초등학교 학생의 자아개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홍익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성(1998). 회복력(resilience) 개념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28(2),
403-413.
- 구윤희(2007). 대학생의 전공선택유형과 학업적 적응과의 관계 대학생
의 전공선택유형과 학업적 적응과의 관계.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권미정(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자아탄력성, 부모지지, 학교생활
적응이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 학위논문.
- 박지아, 유성경(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 애착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5(4), 765-778.
- 서은희(2002). **대학생의 인지양식과 전공선택 및 학업 적응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윤정(2013).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 전공만족도, 교수-학생 상호작용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 송윤정, 조규판(2016). 대학생의 내재적 전공선택동기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전공만족도와 교수-학생 상호작용의 매개효과. **한국교육문제연구**, 34(4), 61-77.
- 신은숙(1994). 대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생생활연구소**, 2, 45-92.
- 신지영(2002). **부모와의 갈등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지연(2013). **대학생의 진로의식성숙과 부모애착, 심리적 독립, 자아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명희, 박명지, 김희정(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 오지혜(2016). **대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전공선택동기가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성경, 심혜원(2002). **적응 유연한 청소년들의 심리적 보호요소 탐색**. **교육심리연구**, 16(4), 189-206.
- 유현실(2007). 진로발달이론의 이해와 한국진로상담에서의 적용. **제3회 진로개발 직업상담 콜로키움 자료집**, 3-20
- 윤현희, 홍창희, 이진환(2001). 부모보고형 자아탄력성 척도의 개발. **심리과학**, 10, 33-53.
- 이건남(2008). **고등학생의 대학전공선택 프로그램 모형개발**. 서울대학

- 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애(2007). 학부제에서의 전공선택 및 전공결정 과정 탐색. **교육평가 연구**, 20(3), 81-101.
- 이은석, 김성희 (2012). 대학생 자아탄력성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 연구**, 13(6), 3077-3094.
- 임언(2006). 이공계대학 전공적합도 진단도구 개발과 타당화. **진로교육 연구**, 19(3), 1-21.
- 임용수(1993). 전공만족도를 중심으로 본 대학생들의 진로사회화 과정에 대한 조사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9, 107 - 29.
- 정보연(2010).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가 직업선택요인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주정현(2011).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 및 자아탄력성이 진로태도 성숙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예정(2014). **대학생들의 전공선택 동기와 직업가치관에 따른 수업참여도와 전공만족도·취업준비행동과의 영향관계 연구**. 경성대 박사학위 논문
- 홍은숙(2006). 탄력성(Resilience)의 개념적 이해와 교육적 방안. **특수교육학연구**, 41, 45 - 67.
- 교육부(2015).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문. **세종: 교육부**
- 교육부(2016).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 **세종: 교육부**
- R. W. Baker, B. Siryk(1984). Measuring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 R. W. Baker, B. Siryk(1989),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manual. *Los Angeles, CA: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s.*

- Block, J.,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Ginzberg(195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Personal and Guidance Journal*. Vol 28. p.4.
- Mitchell, L, K.,& Krumboltz, J. D. (1990). Social Learning approach to career decision making: Krumboltz's theory. In D. Brown et al.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2nd ed.). San Francisco: Jossey-Bass
- Mitchell, L, K.,& Krumboltz, J. D. (1996). · Krumboltz's learning theory of career choice & counseling. In D. Brown, L. Brooks,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3rd ed., pp. 230-280). Sanfrancisco: Jossey-Bass
- Larzarus(1976). Patterns of adjustment(3rd ed). **New York: McGraw-Hill**
- Super, D. E. (1963). Career Development : Self- Concept Theory. **New York :College Entrance Examination Board.**
- Werner, E. E. (1989). High risk children in young adulthood: A longitudinal study from birth to age 32.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9, 72-78.
- Werner, E. E. (1993). Risk, resilience, and recovery: Perspectives from the Kauai longitudinal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5, 503-515.

2. 학년: ⑦ 대학교 1학년____ ⑧ 대학교 2학년____ ⑨ 대학교 3학년____

3. 현재 본

- ① 동양화(한국화) ② 서양화____ ③ 조소____ ④ 디자인 ____
 ⑤ 기타()

인의 소속 계열:

4. 본인의 고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진로관련 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없다. ____ ② 1회 ~ 3회 정도 ____ ③ 3회 ~ 5회 정도 ____
 ④ 5회 ~10회 정도 ____ ⑤ 10회 이상 ____

1. 예술고등학교 재학 시절, 전공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어느 정도 고려하였습니까? (연구 결과의 정확성을 위해 솔직하고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문항 번호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현재 선택한 전공의 재료나 기법에 매력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2	나는 현재 선택한 전공과 관련된 작품에 매력을 느껴 전공을 선택했다.					
3	나는 현재 선택한 전공의 실기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4	나는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받은 전공 실기 과목의 점수를 토대로 전공을 선택했다.					
5	나는 평소 성향이나 성격이 전공 실기의 특성과 맞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6	나는 가족이나 친척의 추천 또는 권유로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7	나는 주변의 선생님이나 친구 또는 선배의 추천, 권유로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8	나는 현재의 전공이 대학 진학에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9	나는 현재 전공의 입시 미술이 대학 진학에 수월하다고 생각하여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10	나는 미래에 되고 싶은 직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현재의 전공을 선택했다.					

2. 다음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변화에 적응하는 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 번호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2	나는 갑자기 놀리는 일을 당해도 금방 괜찮아지고 그것을 잘 이겨낸다.					
3	나는 평소에 잘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해보는 것을 좋아한다.					
4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편이다.					
5	나는 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것을 즐긴다.					
6	나는 매우 에너지(힘)가 넘치는 사람인 것 같다.					
7	나는 늘 가던 장소에 갈 때 여러 다른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					
8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호기심이 많다.					
9	나는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다.					
10	나는 보통 행동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한다.					
11	나는 새롭고 다른 종류의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12	나의 매일 생활은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다.					
13	나는 나 자신이 꽤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14	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나도 상당히 빨리 괜찮아진다.					

3. 다음은 전공 학과에서의 학업 적응에 대한 문항입니다.

문항 번호	문항 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이 어렵게 느껴진다.					
2	학사학위를 따는 것은 내게 매우 중요하다.					
3	나는 시험기간이나 과제발표가 다가오면 잘 지내지 못한다.					
4	나는 왜 대학에 다니고 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알고 있다.					
5	나의 학업적 목적과 목표는 뚜렷하게 정해져 있다.					
6	나는 나의 전공 성적 수준에 만족하고 있다.					
7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8	나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즐겁다.					
9	나는 사실 해야 되는 과제를 해 낼 만큼 능력이 좋지는 못하다.					
10	나는 최근에 전공과 관련된 시간을 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11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가 많고 다양하다는데 만족한다.					
12	나는 수강과목에서 작품을 만들거나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즐겁다.					
13	나는 대학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의 질이나 양에 만족한다.					
14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은 대부분 대학에서의 내 학과 공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15	나는 최근에 전공 관련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주의 집중이 안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	나는 전공 과제 ⁴⁾ 를 밀리지 않고 잘 해나가고 있다.					
17	나는 이번 학기에 수강하는 과목들에 대해 만족한다.					
18	나는 노력에 비해서는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9	나는 전공 과제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하고 있다.					

20	나는 최근에 전공 과제를 수행하려는 의욕이 별로 생기지 않는다.					
21	나는 지금 강의를 맡고 있는 교수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					
22	나는 대학에서의 내 학업 상황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					
23	나는 규칙적으로 강의에 출석한다.					
24	나는 과제를 시작하는데 힘이 든다.					

문항에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4) 전공 실기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 과제.

Abstract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Ego-resiliency on Academic Adjustment in College for Art Majors from Art High Schools

Eun, Sol

Major in Art Education Interdisciplinary Program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ego-resiliency on academic adjustment for art majors from art high school is examined, and improvements are suggested on the problems present in career education at art high schools.

The importance of career education is higher than ever nowadays,

but there has been little career education research consider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rt high schools. Thus there is a need for research on effective career guidance for students in art high schools.

300 subjects, who were undergraduate art students in 4-year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and graduated from art high schools, were asked about 'Major Choice Motivation', 'Ego-resiliency' and 'Academic Adjustment'. I analyzed the differences in major choice motivation between students with high academic adjustment and low academic adjustment, and investigated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ego-resiliency on academic adjustment. I also asked about any career education experiences they received during their years in art high school, and studied if these educational experiences in that time are correlated with academic adjustment.

The major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among the subfactors in major choice motivation, Aptitude and Interest ha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academic adjustment. It also found out that Admission Possibility and Others' Influence and Evaluation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cademic adjustment. This means that a more appropriate standard of major choice for academic adjustment is one's own aptitude and interest, rather than the possibility of getting admitted or recommendation of others. Among the three subfactors in aptitude and interest, Efficacy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academic adjustment. It means that in major choice, the confidence about expressive activities in one's major and the belief in one's own abilities matters more than a liking for one's personality or his/her major.

Second,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aptitude and interest, and

ego-resiliency had a direct effect on academic adjust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n academic adjustment was higher for ego-resiliency than aptitude and interest. It tells us that ego-resiliency, the adaptability of individual students, is most important in academic adjustment. However, when there is no difference in ego-resiliency, a sufficient reflection of one's aptitude and interest in major choice would be a good approach in strengthening academic adjustment. Still, the impact of major choice motivation is limited, since a low ego-resiliency blocks the way to academic adjustment even with a major choice based on one's aptitude and interest. Regression analysis informs me about what should be stressed for career guidance in an art high school; it is supporting students' self-understanding and encouraging a major choice based on inner motives of oneself, but not based on others' evaluation and opinions.

I analyzed the effect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ego-resiliency on college academic adjustment for art high school graduates in this study. The right career guidance specific for art high school students is proposed here, and it is expected to provide fundamental research information in art career education.

Keywords: Career education, Major choice motivation, Ego-resiliency, Academic adjustment, Art major, Art high school

Student Number: 2015-21684